

ISSN: 2635-6104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33 August 2023 8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33 AUGUST 2023

발행일 : 2023년 8월 31일

인쇄일 : 2023년 8월 31일

발행인 : 김정훈

편집위원 : 곽성웅, 계용택, 김자영, 라미경, 박종관, 방민규, 배규성, 백영준,
서승현, 양정훈, 예병환, 이재혁, 한종만

발행처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전화 042) 520-5713

FAX 070-4850-8428

E-mail : kiseling@daum.net

주소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관 416호

인쇄처 : 오크나

주소 :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4-2

전화 : 010-5755-0086

디자인 : 이다용

표지사진 : 2020년 콜라반도 사미마을(김정훈 소장 현지출장 중 촬영)

이 결과물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1092699)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2S1A5C2A01092699)

목 차

| | |
|---|----------|
| ▶ 북극이사회 활동 방향과 대응방안: 북극이사회 사업을 중심으로 | ----- 1 |
| | 서현교 |
| ▶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러시아 석유가스 부문 | ----- 14 |
| | 고주영 |
|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 - 한러, 러일 관계를 중심으로 - | ----- 26 |
| | 이명찬 |
| ▶ '원주민'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 | ----- 46 |
| | 김자영 |

북극이사회 활동 방향과 대응방안: 북극이사회 사업을 중심으로*

서현교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사무총장)

1. 서론

우리나라는 2013년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정식옵서버 (Observer) 가입을 계기로 북극정책기본계획(2013) 등 북극정책에 기반하여 북극이사회 활동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노력해왔다. 해수부는 ‘한국 북극전문가 네트워크’(KAEN: Korea Arctic Expert Network)를 구성하여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활동을 대응해왔다. 그러다 지난 2022년 북극이사회 협력사업과 기후변화 문제에 더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KAEN을 확대·개편하여,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KoNAC: Korean Network for the Arctic Cooperation)를 구성하고, 국내 산학연 북극 전문가를 KoNAC 전문가로 임명했다.¹⁾ 정부는 KoNAC 조직체를 통해 북극이사회 6개 워킹그룹의 회의 개최 전부터 논의 의제를 종합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에 실질적 참여와 기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은 러시아가 의장국이던 북극이사회에 대한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6개 워킹그룹의 사업들도 중단되어, KoNAC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다 올해 5월 북극이사회 의장국이 러시아에서 노르웨이로 바뀌면서 러-우크라 사태에 따른 북극이사회 활동 중지로 인해 멈춰선 6개 워킹그룹의 100여 개 사업들에 대한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북극이사회 동향 및 이에 기반한 미래 전망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한다.

2. 북극이사회 최근 동향

지난 2021년 5월 20일 아이슬란드 레이카빅 (Reykjavik)에서 개최된 북극이사회 12차 각료회의에서는 북극이사회 의장국이 아이슬란드에서 러시아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²⁾ 각료들은 ‘북극이사회 2021-2030 전략계획’(Arctic Council Strategic Plan 2021-2030)

* 본 글은 극지연구소 연구사업(PE23140)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1) KoNAC 발족 및 활동방향 관련 한국농어촌방송 2022년 6월 21일자 뉴스 참조. (검색일 2023.8.4.)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78504>

과 레이카빅 선언문(Reykjavik Declaration)을 각각 채택하였다.³⁾

먼저 ‘2021-2030 전략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을 목표로 북극을 평화와 안정, 그리고 건설적인 협력의 지역으로 유지하고, 원주민을 포함한 거주민들에게는 활기차고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Home)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 전략계획의 비전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비전 아래 전략계획은 아래 <표 1>과 같이 7대 목표(Goals)를 제시하고 있다: ▶북극의 기후; ▶건강하고 회복가능한 북극의 생태계; ▶건강한 북극 해양환경; ▶지속가능한 사회개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지식과 대화; ▶보다 강력한 북극이사회 등.

<표 1> ‘북극이사회 2021-2030 전략계획’ 상의 7대 목표

| 구분 | 2030 전략계획 7대 목표 | 주요 내용 |
|---------------|--------------------|-------------------------------|
| 북극 환경보호 | 북극의 기후 | 북극의 기후변화 충격 대응 |
| | 건강하고 회복가능한 북극의 생태계 | 북극 생태계 보존 |
| | 건강한 북극 해양환경 | 북극해양환경 지속가능활용 |
| 지속가능한 사회·경제개발 | 지속가능한 사회개발 | (원)주민 복지, 건강, 안전 등 |
| |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 북극에서 경제 협력·개발 촉진 |
| 북극이사회 강화 | 지식과 대화 | 전통지식 보존, 북극의 이해 강화 |
| | 보다 강력한 북극이사회 | 협력·조율을 위한 고위 환북극 협력포럼으로 지위 강화 |

또한 이러한 7대 목표별 세부 전략플랜은 아래 <표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표 2> 북극이사회 2021-2030 전략계획의 세부 전략플랜 (Strategic Plan)⁴⁾

| 전략계획 7대 목표 | 전략플랜 (Strategic Plan) |
|------------|--|
| 북극의 기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의 기후변화 가속화 영향(Accelerating effect)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 구축 - 각 사업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와 생물다양성 관점 상호통합 - 북극심각성 전파를 공한 강력한 글로벌 감축 노력 - 온실가스 및 단주기(Short-lived) 기후인자 배출 감축 노력 - 북극 커뮤니티의 적응과 회복 강화 - 북극의 기상·기후 이해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 및 서비스 - 청정에너지 솔루션과 관련 기술 증진 |
| 건강하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약한 북극생태계 보호 |

2)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그린란드), 아이슬란드 등 8개국

3) ‘북극이사회 2021-2030 전략계획’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참조. (검색일 2023.8.4.) <https://oarchive.arctic-council.org/bitstream/handle/11374/2601/ac-strategic-plan%20web.pdf?sequence=8&isAllowed=y>

4) 북극이사회는 이 전략플랜들을 6개 워킹그룹의 각 사업들과 연계시켜 나간다는 계획임.

| | |
|-----------------------------|--|
| <p>회복가능한 북극의 생태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상태 모니터링 - 오염 및 기타 환경이슈 대응하는 글로벌 포럼에서 협력 - 오염물 및 유해·방사능 물질 대응 - 생태계 기반 관리 (EBM) - 북극 생물종에 필수적인 서식처 및 습지 회복 -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 노력 |
| <p>건강한 북극 해양환경</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 해양 및 연안지역 대상 협력 - 북극해에 영향을 주는 표준치(Standards) 개발 |
| <p>지속가능한 사회개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민 건강, 안전, 장기적인 복지 - 공중보건 - 전염병, 감염병 및 세계적 유행 대응 - 성평등 및 차별 금지 - 차세대 젊은이들의 참여 - 교육의 질 증진, 북극원주민 존중 - 지역 수준(Local level)의 포함 |
| <p>지속가능한 경제개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호의적인 조건 증진 - 활기차고 건강한 북극 커뮤니티 - 생계 보장 및 다양화 - 청정에너지, 혁신과 순환 경제 - 전통 생활방식과 지속가능 경제개발 간 일치 - 친환경 및 문화적으로 건전한 관광 - 물리적이고 디지털적인 연결성(Connectivity) |
| <p>지식과 대화</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과 이해 증진을 위한 과학적 평가 - 다른 지식 간 협력을 통한 생산(Co-production) - AC ‘북극과학협력강화협정’ 이행 - 가장 유용한 과학도구 사용 - 전략적 대화 도구와 메커니즘 활용 |
| <p>보다 강력한 북극이사회</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에서 평화, 안정성, 그리고 건설적 협력 - 작업(Working) 방식, 조직과 구조 검토 - 최선의 전통지식, 과학 등에 기반한 정책권고안 보장 - 북극이사회 활동의 효율적 참여를 위한 영구참여자(PP.) 그룹(북극원주민 6개 단체)의 역량 강화 - 북극이사회 재정 검토 - 건설적이고 균형잡힌 의미있는 옵서버의 참여 증진 - 북극경제이사회, 북극해경포럼을 포함하는 민관협력 강화 - 2025년 동 전략계획의 중기 검토 및 2030년 최종 검토 |

그 다음으로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레이카빅 선언문’⁵⁾의 원문 61번에는 2021년부터

5) ‘레이카빅 선언문’(Reykjavik Declaration 2021년 5월 20일)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참조. (검색일 2023.8.4.)

2023년까지의 북극이사회 산하 6개 워킹그룹⁶⁾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SAO⁷⁾ 보고서’를 채택(Adopt)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북극이사회 각료회의가 워킹그룹 사업계획을 승인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승인 절차에 의해 6개 워킹그룹의 100여 개 사업⁸⁾은 계속 또는 새롭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시 북극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는 러시아에 대항하여 나머지 7개 회원국⁹⁾들은 북극이사회 활동 중단 선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북극이사회 산하 6개 워킹그룹 사업들도 거의 중단되었다. 2023년 5월 11일에는 북극이사회 13차 각료회의(온라인회의)를 통해 기존 러시아에서 노르웨이로 북극이사회 의장국이 바뀌었으며, 회원국들은 러-우크라 사태로 중단된 프로젝트 재개 노력을 포함하는 공동성명¹⁰⁾을 채택하였다. 이 공동성명에서 회원국들은 ▶북극의 안정 및 건설적 협력, ▶북극 거주민 간 대화를 통한 북극이사회의 역사적이고 고유한 역할 인식, ▶북극이사회의 수호와 강화 업무에 대한 제고, ▶북극 원주민의 권리 및 역할, 국경을 넘어선 공동체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그리고 그 이전인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 채택된 ‘레이카빅 선언문’(Reykjavik Declaration)과 ‘2021-2030 북극전략계획’을 상기하면서 이 문서들이 앞으로 노르웨이 의장국 활동 기간(2023-2025) 중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레이카빅 선언문에는 앞서 제시된 바와 같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워킹그룹의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 의장국 임기 중 이 레이카빅 선언문이 근간이 된다는 것은 동 선언문 상에 언급된 워킹그룹의 ‘2021-2023’

<https://oaarchive.arctic-council.org/bitstream/handle/11374/2600/declaration%202021%20web%20EN.pdf?sequence=9&isAllowed=y>

6) 북극이사회 6개 워킹그룹(WG)은 △ACAP(Arctic Contaminants Action Program), △AMAP(Arctic Monitoring Assessment Programme), △CAFF(Conservation of Arctic Flora and Fauna), △EPPR(Emergency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PAME(Protection of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SDWG (Sustainable Development Working Group) 등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웹사이트 참조. (검색일 2023.8.4.).

<https://arctic-council.org/about/working-groups/>

7) 북극이사회 SAO (Senior Arctic Officials(SAO)는 북극이사회 회원국 정부 고위급(국과장급) 회의로 6개 워킹그룹 관리를 하고, 각료회의에 6개 워킹그룹을 포함한 활동결과를 보고하는 기능을 함.

8) 북극이사회 6개 워킹그룹의 최신 사업목록은 아래 보고서 및 웹사이트 참조. (검색일 2023.8.7.) 또한 본 논문의 맨 뒤 <부록 1>에 사업목록을 수록함.

“ARCTIC COUNCIL SAO MEETING” 보고서 (2021년 12월 1일~2일, 러시아 살레하르트)

<https://oaarchive.arctic-council.org/handle/11374/2763>

9)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 중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그린란드),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7개국이 북극이사회 활동 중단 선언.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참조. (검색일 2023.8.3.)

<https://www.thearcticinstitute.org/arctic-council-transition-challenges-perspectives-new-norwegian-chairship/>

10)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는 의장국 임기가 끝나는 국가의 북극권 도시에서 개최되고, 그 도시의 이름을 딴 선언문(Declaration)이 채택됨. 그러나 러-우크라 사태로 러시아 의장국(2021-2023) 기간 중 북극이사회 활동이 중단되면서, 2023년 각료회의에서는 러시아 북극권 도시 (당초 살레하르트 개최 예정)의 이름을 딴 선언문 대신에 회원국 공동성명(Arctic Council Statement on the 13th Meeting of the Arctic Council, 11. May. 2023.)이 채택됨. 이 공동성명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 참조. (검색일 2023.8.4.)

<https://oaarchive.arctic-council.org/bitstream/handle/11374/3146/2023%20statement.pdf?sequence=8&isAllowed=y>

기간 사업들에 대한 재개로 연결될 수 있다.¹¹⁾

이후 의장국 노르웨이는 Morten Høglund 북극이사회 SAO의장 주제로 13차 각료회의 1달 후인 6월 13일부터 3일간 북극이사회 사무국이 위치한 트롬소에서 6개 워킹그룹 사무국 및 블랙카본&메탄 전문가그룹(EGBCM: the Expert Group on Black Carbon and Methane) 등의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6개 워킹그룹의 프로젝트 재개를 위한 워킹그룹별 상황 점검 및 정보 공유에 주요 초점이 맞춰졌다.¹²⁾ 이 회의 이후 현재 북극이사회 사무국은 북극이사회 선언문에 기초하여 2021년 시작되어 러-우크라 사태로 중단된 6개 워킹그룹의 사업들을 재개한다는 데 기반하여 워킹그룹 사무국별로 개별사업 현황점검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올 하계시즌 이후 회원국 및 옵서버국을 대상으로 개별사업 재개여부 등의 정보 공유한다는 방침이다.¹³⁾

3. 우리나라 대응방안

한편 우리나라는 해수부를 중심으로 KoNAC을 중심으로 북극이사회 6개 워킹그룹별 사업대응에 착수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KoNAC 사무국 기능을 하고 있으며, 연간 2-3차례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그러나 북극이사회 활동이 러-우크라 사태로 사실상 중단되면서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사업 대응과 글로벌 이슈 해결 기여에 초점을 이룬 KoNAC의 활동은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다행히 노르웨이가 이제 의장국이 되면서 워킹그룹 사업들의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올 하반기 이후 워킹그룹별 사업재개 공지에 대비하여 사전에 구체적 대응방안 마련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 북극 관련 산학연관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정책) 분야에 총 25개 기관 소속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KoNAC 전문가'로 임명되어 있다.¹⁴⁾ 극지연구소, KMI,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

11) 노르웨이는 북극이사회 의장국이 되면서 의장국 기간 (2023-2025) 중 4대 우선순위 과제를 제시함. 이는 △해양(The Oceans), △기후변화와 환경(Climate and Environment), △지속가능한 경제개발(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북극원주민(People in the North) 등임. 4대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NORWAY'S CHAIRSHIP ARCTIC COUNCIL 2023-2025) 링크 참조. (검색일 2023.8.4.)

https://oaarchive.arctic-council.org/bitstream/handle/11374/3147/230508_UD_AC__EN.pdf?sequence=1&isAllowed=y

12) 노르웨이 SAO의장 주제 6개 워킹그룹 및 EGBCM(블랙카본&메탄 전문가그룹) 회의에 대한 세부내용은 북극이사회 웹사이트 참조. (검색일 2023.8.4.)

<https://arctic-council.org/news/norwegian-chairship-hosts-first-meeting-with-working-expert-group-chairs-and-secretariats/>

13) 일례로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SDWG'의 대표사업인 'One Arctic One Health'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대학의 원헬스연구센터(Center for One health Research)는 현재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극지연구소 극지유해미생물 연구팀(연구책임자 이영미 박사)은 올해 내에 원헬스연구센터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첫 미팅을 할 예정이다. 본 논문 저자는 동 사업의 핵심연구원으로 참여 중임. 미국 페어뱅크스대 원헬스연구센터 관련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 참조. (검색일 2023.8.10.)
<https://www.uaf.edu/onehealth/>

14) 해수부 블로그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 발족" 소식. (2022.6.22./ 검색일 2023.8.9.)

은 물론 국립외교원 등 국립연구소, 그리고 배재대, 인천대, 영산대를 비롯한 대학 소속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다. 다만 현재 한정된 예산과 준비 기간을 감안하여, 6개 워킹그룹의 100여 개 사업 중 ▶우리나라 차원에서 우선 대응의 필요성 및 시급성, ▶기존과제 수행을 통한 해당 과제 참여의 용이성, ▶기관별 별도 예산확보 가능 여부, ▶해당 이슈 관련 국내전문가풀 등 KoNAC 이해관계자 간에 다양한 척도를 개발하고 합의를 통해 예산지원 우선순위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한정된 예산의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일례로 단순 1/N 형태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면, 예산 투입에 따른 성과창출의 효율성이나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2013년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옵서버가 된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KAEN 활동 시기에는 북극이사회 과제 참여도 일부 있었으나¹⁵⁾, 주로 워킹그룹 회의 참석을 통한 논의 동향 파악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과제에 대한 실질적 참여와 기여가 이뤄져야 한다. 때마침 국내에서는 북극연구 저변도 크게 확대되었다. 일례로 국내 산학연 북극 연구·활동기관도 그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¹⁶⁾ 따라서 이제는 관련 과제수행에 기반한 워킹그룹 사업 성과창출에 대한 기여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아야 할 단계이다. 이러한 성과 창출을 통해, 우리나라가 워킹그룹 내 해당 과제 일몰 후 후속사업 추진 시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설계된 과제가 착수될 때 공식 참여국으로 인정받는 사업운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책임있는 옵서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결론

매년 1월에 노르웨이 트롬소에서 열리는 북극 프런티어(Arctic Frontiers) 컨퍼런스에서는 해양, 기후변화(환경), 생태계, 원주민 등 북극의 공동이슈를 다루는 ‘북극이사회’가 북극의 안보 이슈까지도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진 적이 있다. 당시 전문가마다 ‘다룰 수 있다’와 ‘없다’로 양분되어 나름의 논의를 이어갔다. 이는 8개국 북극환경 등 공동의 이슈를 협력하는 과정을 근간으로 북극의 긴장 상태를 유발하는 안보 이슈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

<https://blog.naver.com/koreamof/222784365807>

15) 대표적으로 극지연구소는 북극이사회 AMAP 보고서(변화하는 북극에 대한 적응조치: 베링-축치-보퍼트지역 개요보고서 한글본 발간. (아래 링크 참조/ 검색일 2023.8.7.), KMI는 북극이사회 AIA (Aleut International Association)와 Arctic Marine Indigenous-Use Mapping 사업, 국립생태원은 CAFF의 북극 이동철새 보호 관련 사업 등의 직접 참여를 하였음.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www.amap.no/documents/download/3012/inline

16) 일례로 국내 과학-산업-정책분야 북극연구기관 간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는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 회원기관 수를 사례로 보면 2015년 출범 초기에 회원기관은 23개 기관에 불과했으나, 2023년 현재 국내 조선 3사를 비롯하여 41개 회원사로 증가하여 2배 가까이 증가. (검색일 2023.8.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0510.99099003523>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repository.kopri.re.kr/bitstream/201206/4331/1/2-88.pdf

었다.

그런데 막상 북극안보 이슈와 직결되는 러-우크라 사태가 일어나자 북극이사회는 나머지 7개 회원국의 활동 중단 선언이라는 초유의 상황으로 갔다. 즉 북극권국가 간 환경협력이 북극안보 이슈까지도 포용할 수 있다는 논리와는 반대로 간 셈이다. 더욱이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 가입을 추진하면서, 이것이 성사될 경우 북극권 8개국은 안보 측면에서 나토 ‘7개국’ vs. ‘러시아’라는 7대 1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 경우 북극이사회의 기능은 ‘사실상 대폭 축소된다’와 ‘여전히 그 기능은 유지된다’라는 상반된 의견이 여전히 존재한다. 다행히도 현재 상황은 러-우크라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북극이사회 주도권을 잡으면서 활동 재개의 싹이 트고 있다. 이는 북극의 급격한 온난화와 이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변화 등의 지속가능 위기 상황에서 상호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 아래 북극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 워킹그룹 사업의 재개 노력으로 이어진 셈이다. 더욱이 노르웨이가 북극경제이사회 의장국(2023-2025)까지 맡으면서 북극 이슈와 북극 경제이슈를 국제사회에서 주도하는 구도를 갖추며, 북극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올해 7월 세계가 기존 ‘지구온난화 시대’ (Era of Global Warming)가 가고 ‘지구가 들끓는 시대’ (Era of Global Boiling)¹⁷⁾가 되었다고 경고할 정도로 기후안보 위기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으며 북극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회원국들의 북극이슈 대응 공조는 북극환경을 공유하는 소위 ‘환경운명공동체’로서 더욱 절실한 상황인 셈이다. 그런 가운데 북극이사회는 노르웨이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워킹그룹 사업재개를 통한 협력의 싹을 틔우고 있다.

이런 국제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워킹그룹 사업재개에 대비하여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함께 KoNAC 등 구심체를 기반으로 힘을 합쳐 체계적으로 워킹그룹 사업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북극이슈 대응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통한 국격 제고와 함께 북극의 환경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내 업계의 북극진출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와도 연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북극활동의 정당성을 지속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17) 워싱턴포스트 2023년 7월 29일자 “The U.N. warns ‘an era of global boiling’ has started. What does that mean?” 기사 참조. (검색일 2023.8.10.)

<https://www.washingtonpost.com/climate-environment/2023/07/29/un-what-is-global-boiling/>

[참고문헌]

- 북극이사회 회원국 공동성명(Arctic Council Statement on the 13th Meeting of the Arctic Council, 2023년 5월 11일 / 검색일 2023.8.4.), <https://oaarchive.arctic-council.org/bitstream/handle/11374/3146/2023%20statement.pdf?sequence=8&isAllowed=y>
- 북극이사회 7개 회원국 활동 중단 선언 내용 기고문(Arctic Institute 2023년 6월 13일 / 검색일 2023.8.3.), <https://www.thearcticinstitute.org/arctic-council-transition-challenges-perspectives-new-norwegian-chairship/>
- 북극이사회 6개 워킹그룹 최신 사업목록:
- “ARCTIC COUNCIL SAO MEETING” 보고서 (2021년 12월 1일~2일, 러시아 살레하르트 / 검색일 2023.8.7.) <https://oaarchive.arctic-council.org/handle/11374/2763>
- 북극이사회 6개 워킹그룹(WG) (검색일 2023.8.4.) <https://arctic-council.org/about/working-groups/>
- 북극이사회 제12차 각료회의 레이카빅 선언문(Reykjavik Declaration 2021년 5월 20일 / 검색일 2023.8.4.), <https://oaarchive.arctic-council.org/bitstream/handle/11374/2600/declaration%202021%20web%20EN.pdf?sequence=9&isAllowed=y>
- ‘북극이사회 2021-2030 전략계획’(‘Arctic Council Strategic Plan 2021-2030’ 2023년 5월 20일 / 검색일 2023.8.4.), <https://oaarchive.arctic-council.org/bitstream/handle/11374/2601/ac-strategic-plan%20web.pdf?sequence=8&isAllowed=y>
- 노르웨이 북극이사회 의장국 2023-2025 보고서 (‘NORWAY’S CHAIRSHIP ARCTIC COUNCIL 2023-2025 / 검색일 2023.8.4.), https://oaarchive.arctic-council.org/bitstream/handle/11374/3147/230508_UD_AC__EN.pdf?sequence=1&isAllowed=y
- 노르웨이 SAO의장 주제 6개 워킹그룹 및 EGBCM 회의 개최(2023년 6월 15일자 북극이사회 웹사이트 / 검색일 2023.8.4.), <https://arctic-council.org/news/norwegian-chairship-hosts-first-meeting-with-working-expert-group-chairs-and-secretariats/>
-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KoNAC) 발족 및 활동방향 기사(한국농어촌방송 2022년 6월 21일자 뉴스 / 검색일 2023.8.4.),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78504>
- 해수부 블로그 “한국 북극협력 네트워크 발족” 소식(2022년 6월 22일자 해수부 자료 / 검색일 2023.8.9.), <https://blog.naver.com/koreamof/222784365807>
- 극지연구소 북극이사회 AMAP 번역보고서(변화하는 북극에 대한 적응조치: 베링-축치-보퍼트지역 개요보고서 한글본 / 검색일 2023.8.7.), <chrome-extension://efaidnbnmnibpcjpcglclefindmkaj/https://www.amap.no/documents/download/3012/inline>
-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KoARC) 회원기관 수 증가 기사:
- 북극경제개발협의체에 아시아국 중 첫 공식 협력창구 마련(국제신문 2023년 5월 10일자 기사/검색일 2023.8.7.),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30510.99099003523>
- 한국북극연구컨소시엄 발족 프리젠테이션 자료(2015년 12월 9일 극지연 자료/ 검색일2023.8.7.),

chrome-extension://efaidnbmnnnibpcajpcglclefindmkaj/https://repository.kopri.re.kr/bitstream/201206/4331/1/2-88.pdf

미국 알래스카주 페어뱅크스대 원헬스연구센터 (Center for one health research / 검색일 2023.8.10.), <https://www.uaf.edu/onehealth/>

미국 워싱턴포스트 2023년 7월 29일자 “The U.N. warns ‘an era of global boiling’ has started. What does that mean?” 기사 (검색일 2023.8.10.), <https://www.washingtonpost.com/climate-environment/2023/07/29/un-what-is-global-boiling/>

<부록 1> 북극이사회 6개 워킹그룹 사업목록(2021년 11월 SAO회의 제출자료)¹⁸⁾

| No. | WG | 프로젝트명(Initiative Title) | 시작 | 종료 |
|-----|--------------|---|----------|------|
| 1 | ACAP SDWG | Solid Waste Management in Remote Arctic Communities | 2020 | 2023 |
| 2 | ACAP | AFFF (Aqueous Film Forming Foam) and other PFAS containing Foam Phase Out in The Arctic | 2019 | 2023 |
| 3 | ACAP | ARCRISK - Mercury Risk Evaluation, Risk Management and Risk Reduction Measures in the Arctic | 2019 | 2023 |
| 4 | ACAP | Arctic Black Carbon Case Studies Platform (SLCP EG) | 2013 | 계속 |
| 5 | ACAP | Arctic Green Shipping - SLCP Mitigation | 2017 | 계속 |
| 6 | ACAP | Circumpolar Local Environmental Observers (CLEO) Network (IPCAP) | 2015 | 계속 |
| 7 | ACAP | Community-based black carbon and public health assessment (IPCAP) | 2016 | 2023 |
| 8 | ACAP | Demonstration of management and destruction of 250 tons of PCB in transformers: Phase III (Hazardous Waste EG) | 2001 | 2023 |
| 9 | ACAP | Dudinka Municipal Waste Land-fill project | 2017 | 2023 |
| 10 | ACAP | Inventory of uses of POPs and Mercury and their Emission Sources in Murmansk Region | 2019 | 2023 |
| 11 | ACAP | Kola Waste project | 2018 | 계속 |
| 12 | ACAP | Phase-out of ozone-depleting substances and fluorinated greenhouse gases (HFC) at fish and seafood processing enterprises (SLCP EG) | 2017 | 계속 |
| 13 | ACAP | Promotion of decrease of the Barents region pollution by introduction of BAT ("BAT in the Arctic") | 2017 | 2023 |
| 14 | AMAP CAFF | Understanding climate change impacts on Arctic ecosystems and associated climate feedbacks | 2020 | 계속 |
| 15 | AMAP | Air Pollution, including SLCFs | 2017 | 계속 |
| 16 | AMAP | AMAP Trends and Effects Programme | Pre-2000 | 계속 |
| 17 | AMAP | Arctic marine microplastics and litter | 2018 | 계속 |
| 18 | AMAP | Climate Issues: Cryosphere, meteorology, ecosystem impacts | 2018 | 계속 |
| 19 | AMAP | Contaminant issues: POPs and mercury | 2018 | 계속 |
| 20 | AMAP | Contaminant issues: Radioactivity | 2015 | 계속 |
| 21 | AMAP | Human Health and combined effects | 2017 | 계속 |
| 22 | AMAP | Sustaining Arctic Observing Networks (SAON) | 2012 | 계속 |
| 23 | AMAP |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 2013 | 계속 |
| 24 | CAFF PAME | Information Briefs on Arctic environment under change | 2021 | 계속 |
| 25 | CAFF PAME | Invasive species | 2015 | 계속 |
| 26 | CAFF | Actions for Arctic Biodiversity: Implementi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Arctic Biodiversity Assessment | 2013 | 2023 |
| 27 | CAFF | Arctic Biodiversity Data Service (CAFF) | 2012 | 계속 |
| 28 | CAFF | Arctic Migratory Birds Initiative (AMBI): Implementation | 2013 | 계속 |
| 29 | CAFF | Arctic Wildland Fire Ecology Mapping and Monitoring Project (ArcticFIRE) | 2019 | 2023 |

18) 러-우크라 사태 직전인 2021년 11월 북극이사회 SAO(고위급회의)회의에 제출된 6개 워킹그룹 프로젝트 리스트임. 총 128개 프로젝트가 제시되어 있으나 2022년까지 종료과제 및 65번의 Expert 그룹 과제 (이상의 해당 제외 과제들은 볼드체 처리)를 제외하면 실제 100여 개 프로젝트임.

| | | | | |
|----|--------------|--|------------|------|
| 30 | CAFF | CAFF IASC Fellowship | 2017 | 계속 |
| 31 | CAFF | CAFF Youth Engagement Strategy 2021-2026 | 2014 | 계속 |
| 32 | CAFF | CBMP Coastal Biodiversity Monitoring Plan: implementation | 2014 | 계속 |
| 33 | CAFF | CBMP Freshwater Biodiversity Monitoring group: implementation | 2021 | 계속 |
| 34 | CAFF | CBMP Indicators | 2001 | 계속 |
| 35 | CAFF | CBMP Marine Biodiversity Monitoring group: implementation | 2009 | 계속 |
| 36 | CAFF | CBMP Terrestrial Biodiversity Monitoring group | 2011 | 계속 |
| 37 | CAFF | Circumpolar Biodiversity Monitoring Program (CBMP) - General | 2001 | 계속 |
| 38 | CAFF | Climate change impacts on bearded seals | 2016 | 계속 |
| 39 | CAFF | Community Observation Network for Adaptation and Security (CONAS) | 2014 | 계속 |
| 40 | CAFF | Conservation of biodiversity in a changing Russian Arctic | 2011 | 계속 |
| 41 | CAFF | Follow-up on Arctic Council cross-cutting initiatives | 2017 | 계속 |
| 42 | CAFF | Mainstreaming Arctic Biodiversity | 2017 | 계속 |
| 43 | CAFF | Nomadic herders: enhancing resilience of pastoral ecosystems and livelihoods | 2012 | 계속 |
| 44 | CAFF | Salmon People of the Arctic | 2013 | 계속 |
| 45 | CAFF | Scoping for Resilience and Management of Arctic Wetlands | 2017 | 계속 |
| 46 | CAFF | Seabird program | 2000 이전 | 계속 |
| 47 | CAFF | Second Arctic Biodiversity Congress | 2021 | 2023 |
| 48 | CAFF | Third Arctic Biodiversity Congress | | 계속 |
| 49 | CAFF | Traditional Knowledge and CAFF | 2016 | 계속 |
| 50 | EPPR PAME | Environmental toxicity and fate of light and intermediate fuel when spilled in cold waters | 2019 | 2021 |
| 51 | EPPR | Analysis of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Selected Emergencies Relevant for the Arctic Region | 2021 | 2022 |
| 52 | EPPR | Arctic Lessons Learned Arena | 2020 | 2021 |
| 53 | EPPR | Arctic Rescue | 2019 | 계속 |
| 54 | EPPR | Capability Analysis to respond to a Radiological/Nuclear Emergency in the Arctic | 2021 | 2022 |
| 55 | EPPR | Circumpolar Fire | 2019 | 계속 |
| 56 | EPPR | Coordination and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SAR agreement (SAR Expert Group) | 2013 | 계속 |
| 57 | EPPR | Development of Safety Systems in Implementation of Economic and Infrastructure | | 계속 |
| 58 | EPPR | Follow-up on the Framework Plan on Oil Pollution Prevention | 2015 | 계속 |
| 59 | EPPR |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Aerial Surveillance ICAMS | 2021 | 2022 |
| 60 | EPPR | Maintain and update the Operational Guidelines, appendix to the Agreement on Cooperation on Marine Oil 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 2013 | 계속 |
| 61 | EPPR | NEPTUNE | 2020 | 2021 |
| 62 | EPPR | Preven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for Small Communities | 2014 | 계속 |
| 63 | EPPR | Risks Project (RAD EG) | 2020 | 2021 |
| 64 | EPPR | Valida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Polar Code Survival Time Requirement | 2021 | 계속 |
| 65 | Expert Group | Expert Group in support of im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for Action on Black Carbon and Methane (EGBCM) | 2015 | 계속 |
| 66 | PAME CAFF | Arctic Protected and Important Areas | 2017 | 2021 |
| 67 | PAME CAFF | Marine Invasive Alien Species in Arctic Waters | | |
| 68 | PAME |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OECM) in the Arctic | 2021 | |

| | | | | |
|----|--------------|--|------|------|
| | CAFF | Marine Environment | | |
| 69 | PAME EPPR | New Low Sulphur Fuels, Fate, and Behaviour in Cold Water Conditions | 2019 | 2023 |
| 70 | PAME | 4th AMSP Implementation Status Report 2021-2023 | 2015 | 계속 |
| 71 | PAME | 7th EA Workshop on values and valuation of the cultural, social and economic goods and services produced by the ecosystems (20-22 Feb 2022) | 2019 | 2022 |
| 72 | PAME | A framework for more systematically engaging with Observers on shipping related | 2019 | 2023 |
| 73 | PAME | AMSP Implementation Status Report 2019-2021 | 2019 | 2021 |
| 74 | PAME | Arctic Arrangement for Regional Reception Facilities | | |
| 75 | PAME | Arctic Coastal Cleanup | | |
| 76 | PAME | Arctic Marine Tourism: Development in the Arctic and enabling real change | 2019 | 2021 |
| 77 | PAME | Arctic Port Reception Facilities Inventory | | |
| 78 | PAME | Arctic Ship Traffic Data (ASTD) System | 2019 | 계속 |
| 79 | PAME | Arctic Shipping Best Practice Information Forum | 2017 | 2023 |
| 80 | PAME | Arctic Shipping Status Reports | 2019 | 계속 |
| 81 | PAME | Black Carbon emissions from shipping activity in the Arctic and technology developments for their reduction | 2019 | 2021 |
| 82 | PAME | Capacity building, information outreach and collaboration | 2019 | 2021 |
| 83 | PAME | Collaboration with the Arctic Regional Hydrographic Commission (ARHC) | 2019 | 2023 |
| 84 | PAME | Collect and summarize information on Arctic State safe and low-impact marine corridor initiatives | 2019 | 2021 |
| 85 | PAME | Collect, report and/or review information about on-shore use by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of HFO | 2019 | 2021 |
| 86 | PAME | Concept paper on further cooperation under the Arctic Council on Ecosystem-Based Management (EBM/EA) of Arctic marine ecosystems | | |
| 87 | PAME | Continue the project on Modelling Arctic Oceanographic Connectivity, with the inclusion of the Central Arctic Ocean, to further develop PAME's Marine Protected Areas Toolbox | 2019 | 2021 |
| 88 | PAME | Develop additional Information Briefs on the Arctic marine environment under change | 2019 | 2021 |
| 89 | PAME |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Regional Action Plan on Marine Litter in the Arctic (ML-RAP) | | |
| 90 | PAME | Develop an overview of Arctic States' and Observer States' interpretation of the Polar | 2019 | 2023 |
| 91 | PAME | Different Ways of Knowing: Applying Indigenous and Local Knowledge and Scientific Information to Arctic Conservation Planning | 2021 | 2023 |
| 92 | PAME | Existing Waste Management Practices and Pollution Control for Marine and Coastal | | |
| 93 | PAME | Expansion and Refinement of the MPA Network Toolbox | | |
| 94 | PAME | Fishing Practice & Gear Inventory: Enhancing Understanding of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ALDFG) | | |
| 95 | PAME | Implementation Plan for the ARIAS Strategy and Action Plan | 2019 | 2021 |
| 96 | PAME | Integrated Ecosystem Assessment (IEA) of the Central Arctic Ocean (WGICA) | 2019 | 계속 |
| 97 | PAME | Interpretation of the Polar Code | | 계속 |
| 98 | PAME | Management of Arctic Marine Oil and Gas Associated Noise | | |

| | | | | |
|-----|--------------|--|------|------|
| 99 | PAME | Marine Litter Communication and Outreach Activities | | 계속 |
| 100 | PAME | Meaningful Engagement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n Marine Activities (MEMA): Outreach and Next Steps | 2019 | 2021 |
| 101 | PAME | Raising awareness in the Arctic Council of the provisions of the 2012 Cape Town Agreement for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 2021 | 2023 |
| 102 | PAME | Report on development in defining or setting Ecological objectives | 2019 | 2021 |
| 103 | PAME | Revise the Ecosystem Approach Framework (EA) and develop a tool for following EA implementation in the Arctic LMEs | | |
| 104 | PAME | Revisiting the Framework for a Pan-Arctic Network of MPAs (2015) for potential updates | | |
| 105 | PAME | Synthesis Report on Ecosystem Status, Human Impact and Management Measur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 (CAO) | | |
| 106 | PAME | Systematically Strengthening Observer Engagement in PAME's Shipping Work | | 계속 |
| 107 | PAME | Targeted update of the Arctic Council Arctic Marine Strategic Plan (AMSP 2015) | 2021 | |
| 108 | PAME | The Arctic Shipping Best Practice Information Forum | | 계속 |
| 109 | PAME | Third International Science and Policy Conference on Implementation of the Ecosystem Approach to Management in the Arctic | 2019 | 2021 |
| 110 | PAME | Underwater Noise in the Arctic - Phase I | 2019 | 2023 |
| 111 | PAME | Underwater Noise in the Arctic: Understanding Impacts and Defining Management Solutions - Phase II | | |
| 112 | PAME | Update of PAME's shipping priorities and recommendations | 2017 | 2021 |
| 113 | PAME | Update the Arctic Offshore Oil and Gas Regulatory Resource (AOGRR) | 2019 | 2021 |
| 114 | PAME | Wastewater Discharges from Vessels in the Arctic - A Survey of Current Practices | 2021 | 2023 |
| 115 | SDWG AMAP | Biosecurity in the Arctic | 2021 | 2023 |
| 116 | SDWG | Advancing Arctic Resilience: Exploring Aspects of Arctic Resilience connected to the impacts of permafrost thaw | 2021 | 2023 |
| 117 | SDWG | Arctic Community Perspectives on Covid-19 and Public Health: a Multi-site Case Study | 2021 | 2023 |
| 118 | SDWG | Arctic Demography Index | 2020 | 2023 |
| 119 | SDWG | Arctic Food Innovation Cluster (AFIC) | 2019 | 2023 |
| 120 | SDWG | Arctic Hydrogen Energy Applications and Demonstrations (AHEAD) | 2020 | 2024 |
| 121 | SDWG | Arctic Indigenous Youth, Climate Change and Food Culture (EALLU) II | 2019 | 2023 |
| 122 | SDWG | Arctic Remote Energy Networks Academy (ARENA) II | 2019 | 2023 |
| 123 | SDWG | COVID-19 in the Arctic Assessment Report | 2021 | 2023 |
| 124 | SDWG | Digitalization of Linguistic and Cultural Heritage of Indigenous Peoples of the Arctic | 2020 | 2024 |
| 125 | SDWG | Local 2 Global: Circumpolar collaboration for suicide prevention and mental wellness | 2019 | 2023 |
| 126 | SDWG | One Arctic, One Health | 2020 | 2023 |
| 127 | SDWG | Preserving ARctic ARChitectural Heritage (PrARCheritage) | 2021 | 2023 |
| 128 | SDWG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the Arctic: The Nexus Between Water, Energy, and Food (WEF) | 2020 | 2023 |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이후 러시아 석유가스 부문

고주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 서론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2.1% 감소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전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이 2%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World Bank, 2023), 러시아 경제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각종 경제 제재들로 인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¹⁾ 그러나 앞서 2022년 러시아 GDP가 약 -7-8%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Wilson Center, 2022), 러시아 경제가 대외적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 예상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당시 도입된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강화되고 있다. 경제 제재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부문에 집중되어 부과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부문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단행되면서 러시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예상은 러시아와 EU가 석유가스 교역에서 긴밀한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사실로부터 주로 기인한다. EU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최대 석유가스 수출시장이자 최고의 기술 협력 파트너였기 때문에 EU가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을 중단하고, 에너지 부문 프로젝트 전개에 필수적인 중요 기술 및 장비 제공을 제한하는 등의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은 러시아 경제에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러시아 석유가스 부문은 러시아 경제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동 부문은 2022년 기준 러 GDP의 약 18%(Rosstat, 2023a), 재정수입의 약 41%를 창출하고 있다(Ministerstvo finansov rossiyskoy federatsii, 2023). 따라서 러시아 GDP 성장률 감소 폭이 기존의 예측만큼 크지 않다는 것은 러시아 경제, 특히 에너지 부문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따른 기술 및 자본으로부터의 고립, 주요 수출시장과의 단절 등 외부적 위협 요인에 비교적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석유가스 부문을 생산량, 수출 및 가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이로부터 대러 에너지 제재의 영향, 대외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

1) OECD 회원국, 중국, 인도의 전년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이 각각 2.8%, 3%, 7%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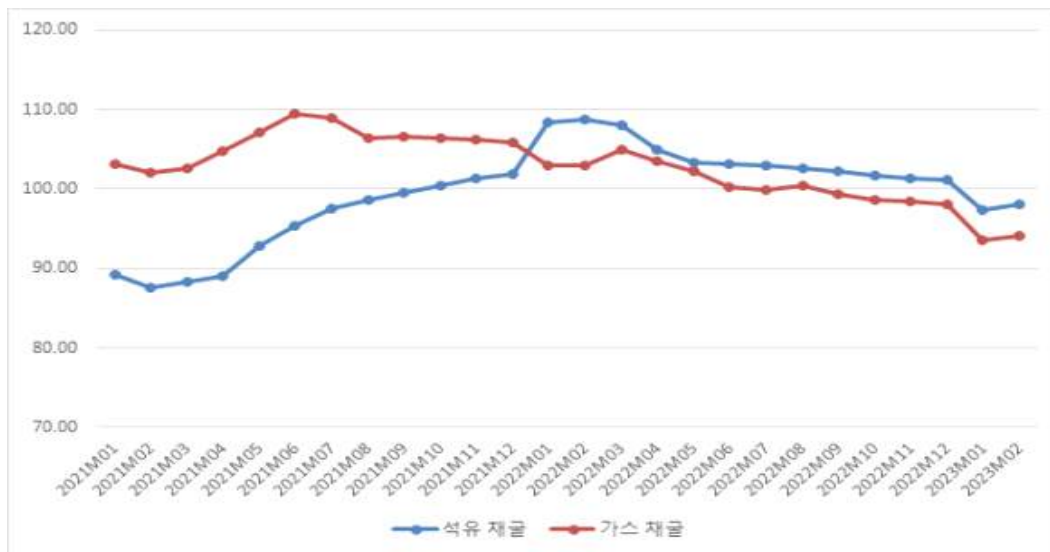
의 과제, 대러 에너지 제재가 제3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2. 본론

(1) 생산량

2022년 러시아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원유 11.2mb/d, 천연가스 618.4bcm으로,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8% 증가, -11.9% 감소한 규모다(Energy Institute, 2023). 다음 <그림 1>에서도 2022년 한 해 석유 부문의 생산량 증가와 천연가스 부문의 생산량 감소 추세가 확인된다.

<그림 1> 러시아 석유가스부문 산업생산지수(IP)



주) 전년동기대비

출처: Rosstat (2023b)

원유의 경우 Rosneft를 제외한 Gazprom Neft, Lukoil, Surgutneftegaz가 적극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했다. Rosneft의 경우, 서방 협력 기업들이 러시아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여 생산 활동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사할린-1 프로젝트 참여 기업이었던 ExxonMobil이 2022년 3월 러시아 사업에서 철수하게 되면서 수개월간 생산이 중단된 바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대응하였는데, 2022년 10월 동 프로젝트를 전개할 러시아 기업을 설립하고, 로스네프트 자회사인 Sakhalinmorneftegaz-shelf가 운영을 맡게 되면서 생산 재개가 이루어졌다.²⁾ 그 결과 2023년 1월 기준, Sakhalin-1의 원유 생산량은 기존의 70%까지 회복된 것으로 확인된다(Yermakov, 2023). 즉, 기존 기업들의 생산 지속 및 정부 개입 정책 등으로 인해 원유 생산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다.

2) 일본 SODECO, 인도 ONGC는 각각 동 프로젝트의 지분 30%, 20%를 유지

한편, 천연가스 생산량 감소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유럽 공급량 감축의 결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발생한 유럽-러시아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었던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 수입국들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입대금 루블화 결제 요구에 불응하여 러시아가 공급을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천연가스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었다(RBK, 2023). 이 밖에도 노드스트림 1-2 폭파 사건 등도 대유럽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다.

대러 제재로 인해 여러 제약 조건이 부과된 상황에서도 러시아의 신규 석유가스 개발 프로젝트들은 전개되고 있다. 향후 러시아의 원유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차기 프로젝트로는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에서 전개되고 있는 Rosneft사의 Vostok Oil 프로젝트를 꼽을 수 있다. 러 북극 지역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경주 타이미르(Taimyr) 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 프로젝트는 2019년 공식 발표되었으며, 원유 매장량은 50억-60억 톤으로 확인되었으며, 생산 개시는 2024년경으로 예정되어있다(Neftegaz.Ru, 2020). 또한 연 생산량은 2020년대 중반까지 5천만 톤, 2030년대 초까지 1억 톤에 이를 전망이다. 동 프로젝트는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기술 및 장비 공급을 제한하는 제재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동 프로젝트에서 개발되는 시베리아지역 지상(onshore) 유전들은 러시아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전통적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유전 개발에 서방의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Yermakov, 2023).³⁾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던 싱가포르 Tragifura(10%)와 스위스 Vitol(5%⁴⁾)이 철수를 결정한데 따라, 인도, 아제르바이잔 기업이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Neftegaz.RU, 2022), 주요 협력 파트너가 서방 기업에서 아시아 기업들로 대체되는 경향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림 2> Vostok Oil



출처: Yermakov (2023)

3) 대러 제재 대상이 되는 기술 및 장비는 주로 심해, 대륙붕, 북극 지역에서의 개발, 정유, LNG 생산 등과 관련된 것임

4) Mercantile & Maritime Energy와의 컨소시엄으로 참여

천연가스 생산과 관련된 중요 프로젝트 중에서는 Arctic LNG-2의 전개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프로젝트에는 Novatek(60%), TotalEnergies(10%), CNPC(10%), Japan Arctic LNG⁵⁾(10%)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생산된 LNG 물량은 지분 비중에 따라서 각 기업이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TotalEnergies가 동 프로젝트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 컨소시엄은 동 프로젝트에 잔류, LNG 물량의 10%(2MT)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Offshore technology, 2023). 동 프로젝트에서는 지난 2023년 7월 LNG 생산이 개시되었다. 대러 에너지 제재는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이미 투자가 이루어진 프로젝트의 생산 개시는 가능하다.

LNG의 경우 대러 제재로 인해 서방의 LNG 생산 기술에의 접근에 제약이 생기게 되어 러시아 국산 장비 및 기술 개발, 발전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천연가스 액화 장비 생산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2022년 8월 중, 대형 규모 LNG 생산장비 개념설계에 10억 루블을 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고주영, 2022). 러시아 국산 LNG 생산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 노바텍은 Yamal LNG프로젝트에 자체 개발한 소형(Small scale, 1mtpa) LNG 생산 기술인 Arctic Cascade을 적용하고 있으며, Obsky LNG 프로젝트에서 동 기술을 2.5mtpa 규모로 확대하여 적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대형(Large-scale) LNG 프로젝트용 기술을 개발 중이나 실제 적용하기 전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Chyong et al., 2023). 이미 진행 중인 LNG 프로젝트들에는 액화 설비가 이미 갖추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생산 관련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Gazprom의 Vladivostok LNG등 신규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데는 국산 기술 개발, 발전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2) 수출량

대러 에너지 제재에는 2022년 12월, 2023년 2월부터 러시아로부터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유럽 석유 수출이 급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에너지 부문 대러 경제 제재는 예외 조항을 마련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제한 내용을 담은 EU의 6차 대러 제재 패키지는 일부 내륙 회원국에 한해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원유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아래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로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원유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 폴란드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자발적으로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었는데⁶⁾,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23년 초까지 원유 수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는 대러 제재로 인해 대유럽 석유 수출에 제약이 따르게 되자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확대했다. 아래 <그림 4>에서 2022년 2월 이후 대유럽 원유 해상 공급이 급감하였고 동시에 인도와 중국에 대한 물량은 빠르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러시아 극동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는 Sokol⁷⁾은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도 수입되고 있다(Energy Intelligence, 2023).

5) Mitsui와 JOGMEG 컨소시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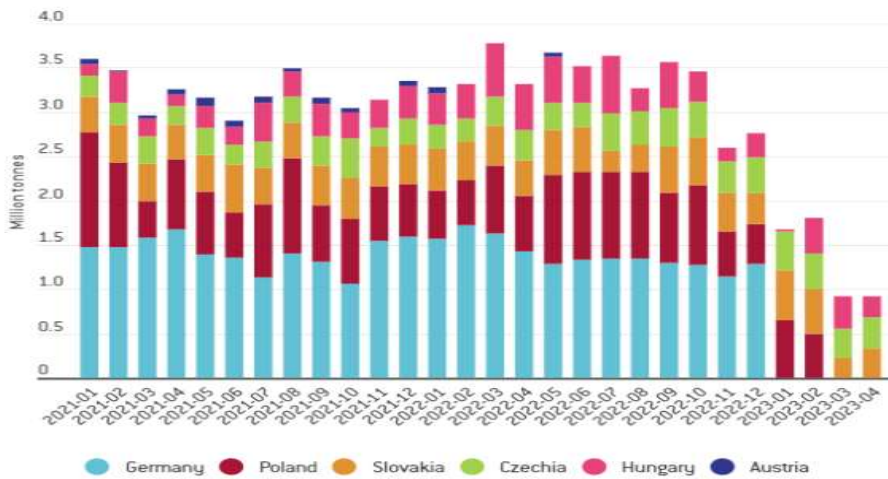
6) 에너지 부문 경제 제재 관련한 내용은 권원순, 고주영 (2023)을 참조

7)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거래되는 러시아산 원유 유종은 Ural, Sokol, ESPO가 있는데, 각각 Primork(레닌그라드 주)항, De Kastri(하바롭스크) 항, Kozmino(연해주 나훗카) 항을 통해 수출됨

한국의 경우, 2022년 3월-11월 간 약 170만 톤의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관세청,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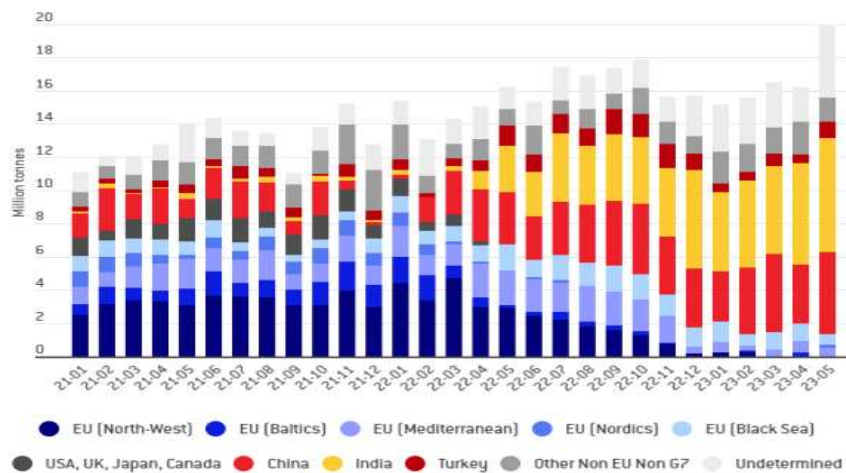
천연가스의 경우, 대러 에너지 제재가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제재는 도입되지 않았다.⁸⁾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EU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단기 및 현물 거래가 위축되었고,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은 장기계약(LTC) 기반 물량뿐이었으나, EU의 REPowerEU 계획 등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조치가 실현되면서 장기계약마저도 원활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

<그림 3> 도착지별 드루즈바(Druzhba) 송유관 운송 물량



출처: Brugel (2023a)

<그림 4> 러시아산 원유의 도착지별 해상 운송 물량



주) “undetermined”카테고리에는 선박 간 환적(ship-to-ship transfer) 물량 등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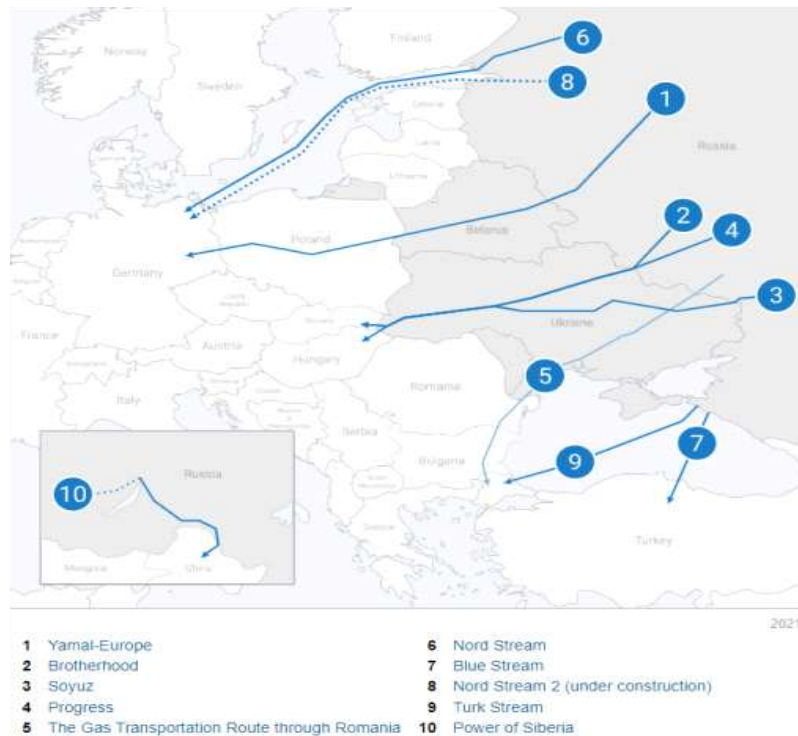
출처: Brugel (2023a)

8) 이 밖에도 제재는 아니지만 EU의 REPowerEU 계획이 궁극적으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라트비아는 가스프롬과 2030년까지 LNG 1.4 bcm을 수입하는 장기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나 2023년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 도입되었는데, 이에 러시아도 공급 중단으로 대응한 바 있다. 또한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지급하라는 러시아 측의 요구를 유럽 구매자들이 수용하지 않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대응한 사례 등은 장기계약을 기반으로 한 천연가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욱이 유럽 구매자들이 가스프롬에 대해서 공급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천연가스 공급을 둘러싼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Henderson and Chyong, 2023).

그러나 동남부 유럽 국가들(헝가리,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그리스 등)은 지리적 이유로 인하여 러시아와의 공급 계약을 유지하고 러시아산 천연가스(25bcm)를 계속 도입하고 있다(Henderson and Chyong, 2023)⁹⁾. 현재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은 우크라이나 경유 파이프라인¹⁰⁾과 터키스트림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으며(<그림 5>), 특히, 2023년 1월 기준, 터키스트림을 통한 대유럽 공급량은 연간 47bcm(연간 16.5bcm)으로 최대 통과 용량에 근접한 수준이었다(Chyong et al., 2023). 그러나 2023년 상반기 동안 두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유럽 공급량은 10bcm으로 알려졌다는데, 이는 전년 동기 수출량 42 bcm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ECFR, 2023).

<그림 5> 러시아의 대유럽 천연가스 수출 파이프라인



출처: Gazprom Export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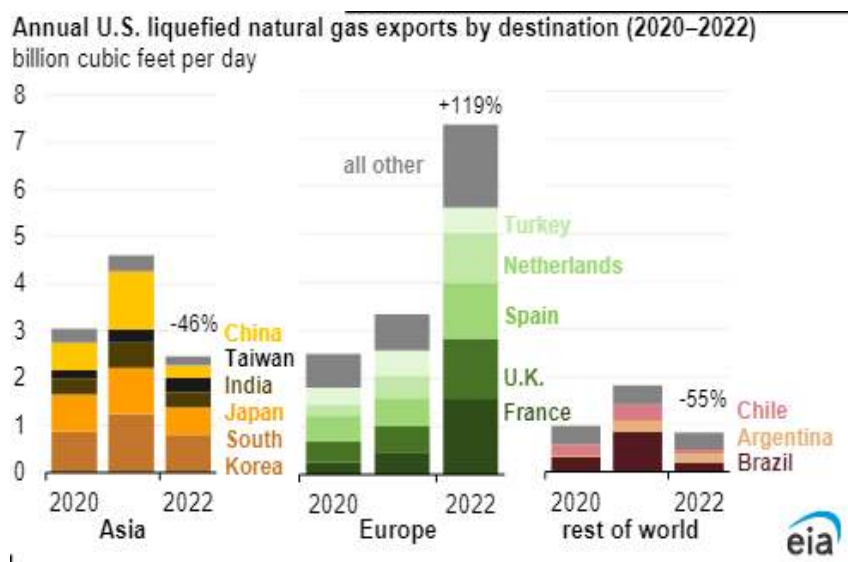
9) 25bcm 상당으로 알려짐

10) 우크라이나와 천연가스 경유 계약 종료 시점은 2024년 말까지로, 동 계약이 연장 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임

터키스트림을 통한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공급은 유럽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동 파이프라인을 통한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터키스트림 운영사인 네덜란드의 South Stream Transport에 대해서 네덜란드 당국은 지난 2022년 9월 터키스트림을 통한 가스 수출이 대러 제재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동 파이프라인의 수출 허가를 철회한 바 있으나, 같은 해 10월, 동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수출 허가를 재개한 바 있다(S&P Global, 2022).

LNG의 경우, 서방이 대러 에너지 제재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프랑스 Total Energy가 Yamal LNG 프로젝트에 잔류하는 등 LNG 부문은 파이프라인을 둘러싼 문제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다. EU가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수입량을 축소하며 대러시아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임에 따라 유럽 시장에서의 LNG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것은 주로 미국산 LNG다. <그림 6>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22년 한 해 미국의 대유럽 LNG 수출 물량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 도착지별 미국 LNG 수출 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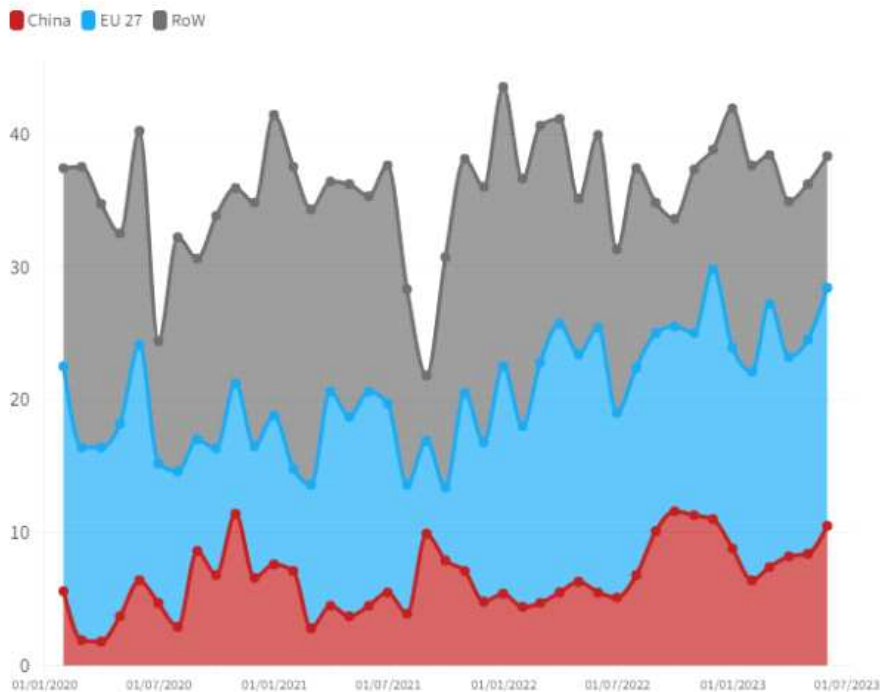
출처: EIA (2023)

그러나 동시에 러시아로부터의 LNG 공급 또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Novatek은 대유럽 LNG 수출로 2022년 한 해 수입은 전년 대비 10% 증가하였으며, 순수익은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upstream, 2023). 다음 <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22년 한 해 대유럽 러시아 LNG 수출량은 러시아 LNG 생산량의 40%로 확인된다. 이는 대중국 러시아 LNG 수출량 비중(20%)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Brugel, 2023b). LNG 부문은 제재의 영향 범위에서 현재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 2022년 3월-2023년 6월 간 천연가스(LNG) 약 220만 톤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관세청, 2023).

(3) 가격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의 전통적인 석유가스 수출시장이었던 유럽시장에서 러시아산 에너지자원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하며 가격도 낮아지게 되었다.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은 Brent유와 비교하여 많게는 \$35-40/bbl, 적게는 \$10-15/bbl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Yermakov, 2023).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가 유럽을 대체할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중국과 인도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그림 7> 도착지별 러시아산 LNG 수출 물량 비중(2020.1.-20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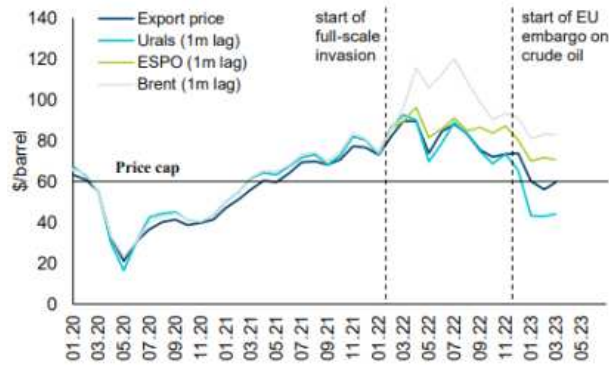
출처: Brugel (2023b)

그러나 유럽이 러시아산 석유가스 대체재에 대한 수요를 늘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글로벌 석유가스 시장에서의 가격은 큰 폭으로 인상되었는데, 유가는 2021년 약 \$70에서 2022년 약 \$101로 인상, 천연가스의 경우 아시아 지역 LNG 수입가격 지표인 JKM은 2021년 \$18.6/mmbtu에서 2022년 \$33.98/mmbtu, 유럽 허브 가격인 NBP와 TTF는 2021년 각각 \$15.8/mmbtu, \$16/mmbtu에서 2022년 \$25.1/mmbtu, \$37.48/mmbtu로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Energy Institute, 2023).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Brent유 가격이 큰 폭으로 인상된 데 반해 러시아의 Ural유, ESPO유의 가격 인상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듯 러시아가 대체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및 인도 등지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

징적인 것은, 유럽 지역으로 수출되는 Ural유의 가격에 비해서 Sokol유와 함께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되는 ESPO의 가격의 가격 수준이 더 높다는 점이다. 서방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제한 조치의 영향이 러시아 유럽과 아시아로의 석유 수출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서방의 대러 에너지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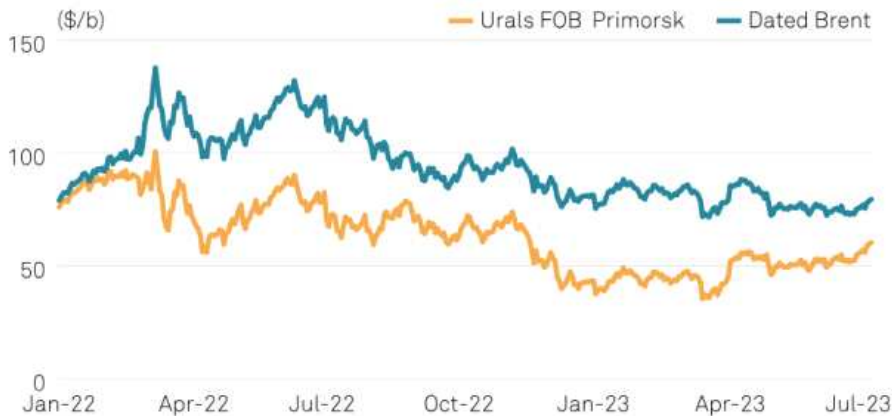
<그림 8> 러시아 우랄유, ESPO유 수출 가격



출처: KSE (2023)

한편, 2023년 7월에는 러시아 Ural유와 Brent유간 가격 격차가 \$19/bbl로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최소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그림 9>),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생산량과 수출량을 8월부터 각각 1mbpd, 0.5mbpd 감축하기로 결정한 결과, 시장에서 유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추정에 따르면, 7월 11일 기준 Ural유 가격은 배럴당 \$60.32로, 이는 G7과 EU가 정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 수준인 \$60/bbl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다 (S&P Global, 2023).

<그림 9> Brent유 및 Ural유 가격 추이



출처: S&P Global (2023)

러 에너지부의 추정에 따르면, 상술한 신규 프로젝트인 Vostok Oil 프로젝트의 경우 약 10조 루블¹¹⁾(2023.8.2.환율 기준 약 1000억 달러)규모의 투자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도, 배럴당 \$35-40 수준에서도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Interfax, 2019). 즉, EU의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 정책, 중국 및 인도 등지에 대한 할인 판매 등으로 러시아산 석유 가격이 대체로 낮게 형성되어 있지만, 신규 프로젝트 실현에 있어 중대한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러시아 석유가스 부문에 대한 경제 제재의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다. 러시아의 석유가스 생산량, 수출량,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서방의 대러 에너지 제재는 현재까지 러시아의 석유가스 생산량 감소, 가격 폭락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러시아 경제가 대외적 리스크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본 확보와 국산 기술 개발이 중요한 과제다.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볼 때, 신규 에너지 프로젝트의 실현을 해서는 서방 자본을 대체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확보하고 새로운 협력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중국, 인도 외 협력 국가를 다변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유럽 시장으로의 석유가스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지만 러시아는 단기간에 중국 및 인도에 대한 수출량을 확대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러시아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어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 및 인도 외의 국가와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넷째, 에너지 부문을 타겟으로 하는 대러 경제 제재가 제3국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석유가스 가격 상승은 저소득 국가 에너지 수급 문제를 야기한다. EU가 LNG 수입을 통해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천연가스를 대체함에 따라 LNG 가격이 인상되었고 이에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지역 저소득 국가들은 LNG 수급 문제, 이에 따른 전력 생산의 문제를 겪었다(Reuters, 2023).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강화된 대러 에너지 제재가 러시아 석유가스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러 에너지 제재의 장기적인 효과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유럽 및 유럽 외 지역의 에너지 안보 문제 등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11) 2023.8. 환율(91.78루블/\$) 기준 약 1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이는 2019.10, 추정 당시 환율(65루블/\$)로 계산할 경우 약 1090억 달러다.

[참고문헌]

- 고주영 (2022) 대러 에너지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 그리고 한국에의 시사점. 2022 KIEP
 신흥지역연구 통합학술대회 발표자료집, 세션3-3 한국유라시아학회, 1-16.
- 관세청, 2023. 수출입무역통계 품목별 국가별수출입실적 URL: <https://unipass.customs.go.kr/ets/>
- 권원순, 고주영 (2023) 대러 에너지 제재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석유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48권 제1호. 165-191.
- Brugel (2023a) Russian crude oil tracker. Available on:
<https://www.bruegel.org/dataset/russian-crude-oil-tracker>
- Brugel (2023b) The EU can manage without Russian liquefied natural gas. 28 June,
 2023. Available on: <https://www.bruegel.org/policy-brief/eu-can-manage-without-russian-liquified-natural-gas>
- Chyong, C.K., Corbeau, A., and Mitrova, T. (2023) Future options for russian gas
 exports. *Columbia University Center on Global Energy Policy*, January 2023.
- ECFR (2023) Own goal: How Russia's gas war has backfired. 27 July 2023. Available
 on: <https://ecfr.eu/article/own-goal-how-russias-gas-war-has-backfired/>
- Energy institute (2023)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Data. Available on:
<https://www.energyinst.org/statistical-review>
- Energy Intelligence (2023) Russia Ramps Up Pacific Crude Exports. Apr, 3, 2023.
 Available on: <https://www.energyintel.com/00000187-386b-d893-a9cf-3eef57890000>
- Henderson, J., and Chyong, K. (2023) Do future Russian gas pipeline exports to Europe
 matter anymore? *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Energy Insight: 131.
- Interfax (2019) V Minenergo zatraty na "Vostok Oyl" otsenili v 10 trln rubley,
 28.10.2019. Available on: <https://www.interfax.ru/business/681969>
- KSE (2023) Russian oil exports under international sanctions, April 26, 2023. Available on:
https://kse.ua/wp-content/uploads/2023/04/Russian_Oil_Exports_under_International_Sanctions_23Q1_UPDATE26042023.pdf
- Ministerstvo finansov rossiyskoy federatsii (2023) ispolneniye federal'nogo byudzheta i
 byudzhetov byudzhetnoy sistemy rossiyskoy fderatsii za 2022 god (in Russian),
 Available on: https://minfin.gov.ru/common/upload/library/2023/04/main/ispolnenie_federalnogo_budzheta_predvaritelnye_itogi.pdf
- Neftegaz.RU (2020) Vostok Oil. (in Russian). 17 May, 2020. Available on:
<https://neftegaz.ru/tech-library/mestorozhdeniya/680427-vostok-oyl/>
- Neftegaz.RU (2022) V. Putin razreshil sdelki s dolyami uchastiya proyekta Vostok Oyl i
 byvshimi rossiyskimi aktivami Baker Hughes. 4 Nov. 2022. Available on:
<https://neftegaz.ru/news/gosreg/757542-v-putin-razreshil-sdelki-s-dolyami-uchasti>

- ya-proekta-vostok-oyl-i-byvshimi-rossiyskimi-aktivami-bake/
Offshore Technology (2023) Arctic LNG 2's first production line gets Putin's assent, July 21, 2023. Available on: <https://www.offshore-technology.com/news/arctic-lng-2-production-line/>
- RBK (2023) V Rossii zamedlilis' tempy sokrashcheniya dobychi gaza (in Russian), 26.7.2023. Available on: <https://www.rbc.ru/business/26/07/2023/64c0b6a09a7947481662c89f>
- Reuters (2023) Analysis: Gas shortage exposes fragile South Asian economies to more pain. February 21, 2023. Available on: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gas-shortage-exposes-fragile-south-asian-economies-more-pain-2023-02-20/>
- Rosstat (2023a) natsionalniye scheta. Available on: <https://rosstat.gov.ru/statistics/accounts>
- Rosstat (2023b) Indeks proizvodstva (in Russian), Available on: <https://showdata.gks.ru/report/274128/>
- Upstream (2023) LNG shipments to Europe give Russia's Novatek a profit lift. 20 March 2023. Available on: <https://www.upstreamonline.com/finance/lng-shipments-to-europe-give-russia-s-novatek-a-profit-lift/2-1-1421951>
- Wilson Center (2022) Russia's Economy at the End of 2022: Deeper Troubles. Available on: <https://www.wilsoncenter.org/blog-post/russias-economy-end-2022-deeper-troubles>
- World Bank (2023) GDP (current US\$) - Russian Federation. Available on: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CD?locations=RU>
- Yermakov, V. (2023) Russian oil output increases in 2022 amid unprecedented Western sanctions: What's next? *The Oxford Institute for Energy Studies*, Energy Insight: 132.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북아 국제관계 - 한러, 러일 관계를 중심으로 -

이명찬
(前 동북아역사재단)

1. 서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각국의 시각

우리는 “새로운 전쟁 전”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전시 중”에 돌입하고 있다. 미·중 전쟁이 이미 개시되었고 그것에 따라 미국이 전시체제로 이행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전쟁은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금융, 정보, 사이버, 인지 등, 모든 영역에서 전투가 전개되는 “하이브리드 전”(초한전)이다. 군사와 비군사, 전시와 평시의 경계선이 애매한 “회색 지대 사태”가 일상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침공하고 나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14년에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후 “하이브리드전”의 형태로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침공은 회색 지대에서 전시로 확대됐을 뿐이다. 그렇다면 하이브리드전의 형태에서 갑자기 침공의 형태로 급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1) 푸틴의 강렬한 피해자 의식과 침공의 목적

푸틴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면, 러시아는 1990년대 초부터 억눌려, 이대로는 대국으로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리라는 위기의식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을 향해 행한 2022년 2월 24일의 TV 연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과거 30년간, 우리는 NATO 주요국 사이에서, 안전보장의 원칙에 대해서 참을성 있게 합의하려고 시도해 왔다. NATO는 우리의 항의나 염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했다. 그리고, 병기는 러시아의 국경에 가까워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중략) 대답은 명료하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은 약체화하였고 그 후 붕괴했다. 우리가 자신을 잃은 것은 그저 일순간이었지만, 세계의 힘의 균형을 바꾸기에는 충분했다.〉

〈이 이상의 NATO 확대나 우크라이나 국내에 군사 거점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 NATO는 미국의 외교 정책의 도구이다.〉

〈미국과 동맹국에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봉쇄 정책이다〉(2월 24일 · 공동)

소련의 붕괴로 국력이 쇠약해져,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러시아는 미국에 의해 일방적인 군비 축소를 강요당하며 견뎌 왔다. 하지만, 그 무렵과는 이제 다르다는 자부심이 러시아인 전체에 공통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전승 기념일 식전에서 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 작전”을 다시 정당화했다.

작년(2021년) 12월, 우리는 안전보장 조약의 체결을 제안했다. 러시아는 서방 제국에 대해 성실한 대화를 하여 현명한 타협책을 모색하고 서로의 국익을 고려하도록 재촉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쓸데없었다. NATO 가맹국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을 귀를 가지지 않았다. 즉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였다.

돈바스(인용자 주: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에서는 한층 더한 징벌적인 작전의 준비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크림을 포함한 우리의 역사적인 토지로의 침공이 획책 되고 있었다. 키예프는 핵병기 취득의 가능성을 발표하고 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밀고 들어간 것은 침략에 대비한 선제 대응이다. 그것은 필요하고 타이밍 적절하며 유일한 올바른 판단이었다.¹⁾

러시아가 침공한 것은 우크라이나이지만, 푸틴의 행동을 유발한 것은, NATO와 미국이라는 것이 위의 두 번의 연설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의 보호. 그중 70만 명은 러시아 국적을 가지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인 위협이 아니게 하는 것. 즉,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적인 병기를 모두 두드려 부수는 것이다.

세 번째 목적이, 친미이며 반러시아 노선인 젤렌스키 정권을 쓰러뜨리는 것. 단, 다음 정권은 괴뢰가 아니라, 러시아와 융화 적일 것이 조건이 된다. 완전한 괴뢰 정권은 우크라이나의 국민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을 푸틴 대통령은 역사로부터 배우고 있다.²⁾ (예, 1956년의 “헝가리 동란”, 1968년의 “프라하의 봄”)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반응을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 읽고 있었을까? 푸틴은 NATO나 미국의 약점을 완전히 읽고 있었다. 미국이나 EU나 일본이 최대한의 제재를 단행하리라는 것은 이미 각오했을 것이다. 그러나, 극히 단기간으로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전술한 3개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반을 만들어 버리면, 국제사회는 현상을 추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고 보고 있었을 것이다. NATO도 미군도 직접은 개입해 오지 않으리라고 완전히 약점을 읽고 있었다. EU 제국은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를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유럽 전체로 40%. 독일에 이르면 50% 이상이다. 잃는 타격의 크기를 생각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소극적으로 되리라고 푸틴은 보고 있었다. 미국은 국내 여론이 염전 분위기고 바이든 대통령은 너무 일찍이 군사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는다고

1) 佐藤優が明かす「消極的だった独ショルツ首相を、超強氣に急変させた”ある団体”, 『PRESIDENT Original』 (2022.5.24)

2) 佐藤優「プーチン大統領の目的は『ウクライナに傀儡政権を樹立すること』ではない, 『PRESIDENT Original』 (2022.3.3)

표명해 버렸다.

2) 미국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4월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받은 미국의 목표에 대해서,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체화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월 8일의 G7 정상회담으로 채택된 공동 성명에서는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의로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침이 문서로만 들어졌다.

AP 통신이 시행한 미국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세로 “미국이 주요한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회답이 26%에 머무른 한편, “작은 역할을 완수해야 한다”는 52%, “역할을 완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회답은 20%였다. 미국 국민의 대부분은 이런 전쟁에 관여하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사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는데, 우크라이나에 군을 보내지 않는 것은 국내에서의 찬동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일찍이 군사적인 수단을 취하지 않겠다고 표명해 버렸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힘이 났다. 푸틴 대통령은 핵병기의 사용을 흘리기도 했다. 제3차 세계대전의 위험이 있는 개입을 미국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푸틴 대통령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은 (바이든 미 정권의) 한심한 아프간 철수를 보고, 무자비한 우크라이나 공격을 결단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다.

3) 전후 독일의 원칙 “분쟁지에 병기를 보내지 않는다”를 급변시킨 이유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승리를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솔츠는, 화요일(19일)에 서방 각국 지도자가 참가한 비디오 회의의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유럽연합(EU) 및 NATO에서의 파트너와 함께 우리는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견해에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라고 솔츠는 말했다.

전쟁에서 승전인지 패전인지에 대한 평가는 승패 라인을 어디에 긋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반대로 말하면, 쌍방이 승패 라인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으면, 전쟁은 끝이 나지 않는다. 구미의 주요국 지도자는 이 전쟁의 승패 라인을 명확하게 해 오지 않았다. 그러나 미영불독일이나 EU, NATO의 정상들이 함께한 회의 후에 “러시아를 승리시키지 않겠다”라고 한 발언은 서반진영 전체의 목표로 받아들여진다.

솔츠 발언 전까지는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중, 친러파 무장 세력이 이미 실효 지배하고 있

는 영역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주장을 인정하고 우크라이나가 향후 중립화를 약속하는 것으로 정전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서방 진영 전체의 목표로서 러시아를 승리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현 상황에서 정전 라인을 긋는 것은 장래에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반성으로부터 독일이 분쟁 지대에 공격적 병기를 제공하는 일은 없었지만, 솔츠 수상은 이 노선을 변경하여 강경 자세로 변한 것이다. 그 이유는 연립 정권을 구성한 녹색당에 이끌려졌기 때문이다. 메르켈 전 수상과 달리, 솔츠 정권은 권력 기반이 취약하다. 모든 선거에서 녹색당은 지지를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내는 어떤가 하면, 2014년의 크림 병합 때 정도로 국민은 환영하고 있지 않다. 그때는, 구미에 계속 당한 러시아에 역전의 상징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고 국민의 생활은 어려워졌다. 푸틴 대통령의 1기째와 2기째인 2000~2008년까지는 경제 성장률이 평균 연 6.97%, 리먼 쇼크로 2009년의 경제성장은 침체하여, 2010~2013년까지는 3.84% 정도 있던 경제 성장률이 크림 제재 후의 2014년부터 2021년에는 평균으로 0.92%까지 떨어졌다.

키이우에서 철수한 러시아군은 동부 2주에서 공세를 강하게 하고 있지만, 도네츠크주에서는 대략 50%의 점령에 머무르고 있다. 도네츠크주의 주요 지역은 러시아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지하호를 만드는 등, 콘크리트로 굳히고 요새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크림반도가 병합된 2014년경부터 위험을 느끼고 준비하고 있었다. 도네츠크주는 경제력에서도 산업력에서도 압도적으로 중요하므로 방어를 굳히고 있었다.

한편, 루한스크주에서는 거기까지 대비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러시아가 금세 90%를 점령했다. 이것으로부터도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의 방위에 최대한의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도네츠크주를 둘러싼 공방이 전쟁의 향후 골격을 결정하리라는 인식에서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서방 제국도 변함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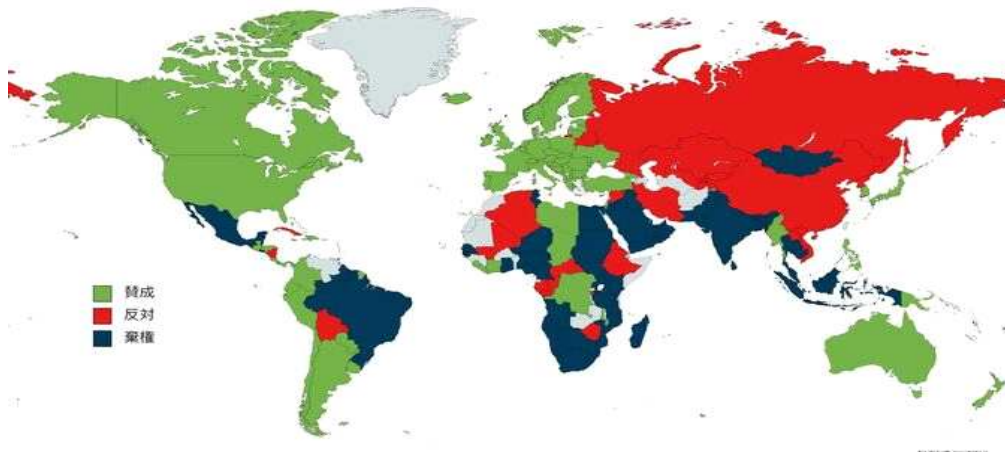
1991년에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이라는 미승인 국가를 만들고 러시아군이 평화 유지군의 이름으로 주둔하고 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공화국”과 같은 형태이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연안의 도시 오데사를 점령하여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공화국과 연결해 버리는 것이 러시아의 목적이다.



4)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세계 여론

국제연합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로부터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가 3월 2일에 행해져, 193개국 중 141개국이 찬성하였다. 러시아, 벨라루스, 시리아, 북한, 에리트레아의 5개국만이 반대하였고, 중국이나 인도 등 35개국이 기권했다. 인권 이사회에서의 러시아의 이사국 자격을 정지시키는 4월 7일의 결의에서는 찬성이 93개국으로 감소했다. 중국 등 24개국이 반대하고 58개국이 기권으로 돌아섰다.

図表1 ロシアの孤立を狙ったが、反対・棄権が82カ国に



2. 양국의 갈등 원인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 나서 1년 4개월이 지났다. 러시아의 군사 침공에 철저 공세를 계속하는 우크라이나. 왜 정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배경에는 억압되어 온 비극의 역사가 있다. 언어, 종교, 정체성이 지역에 따라 다른 우크라이나의 복잡한 역사와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기에는 지정학, 언어, 종교, 교육, 경제 등의 요소가 얽히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의 분쟁이나 민족 대립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도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100의 민족이 사는 다민족국가이다. 이 나라는 동부와 서부에서 형성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 말도 종교도 사는 사람들의 본질도 완전히 차이가 난다. 국토의 반은 평야이지만, 서쪽으로 갈수록 산악 지대이다. 유럽에 가까운 서쪽일수록 풍요로울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는 반대이다. 러시아가 집요하게 손에 넣으려고 한 마리우폴을 포함한 도네츠크주 등, 동부가 경제의 중심이다.

크림을 제외한 인구는 4,159만 명(2021년:우크라이나 국가 통계국). 민족의 내용은 우크라이나인 77.8%, 러시아인 17.3%, 벨라루스인 0.6%. 그 외 몰도바인, 크림·타타르 사람, 유대인 등이고(2001년 국세조사), 대략 100의 민족이 살고 있다.³⁾

1) 양국 사이 비극의 역사

같은 역사라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 882년, 현재의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키예프·루시(키예프 대공국)라는 대국이 태어났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기원이 된 나라이다. 광대한 나라였지만, 작은 공국으로 분열하고 싸우게 된다. 그 하나로, 모스크바 공국이 있었다. 키예프·루시는 몽골·타타르에 공격받고 1240년에 수도인 키이우가 함락된다. 그 후, 모스크바 공국으로 발전하고 러시아 제국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는 것이 러시아인의 러시아사 인식이다. 이 역사관으로는 우크라이나 영역 대부분은 일관되게 러시아이다.

키예프·루시가 멸망했을 때, 키이우의 서쪽에 해당하는 가리치아 지방의 리비우로 옮기고 지어진 가리치아 공국이야말로 키예프·루시의 정통을 이은 나라이다. 이 주장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정권의 역사관이다. 가리치아 공국은 14세기에 서쪽의 폴란드 왕국에 편입된다. 18세기부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영토가 되어, 제1차 대전 후는 폴란드령으로 돌아온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소련에 편입될 때까지, 러시아의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 지역이다.

그런데, 소련의 지배하에 놓인 우크라이나 동부가 최대의 비극에 휩쓸린 것은 1930년대의 초기이다. 원인은 소련에 의해 농업의 집단화를 강제당한 것이었다. 러시아에서는 예로부터 농촌이 공동체로 토지의 사유제가 없었다. 따라서, 농업의 집단화가 도입되어도 비교적 원활하게 이행할

3) 佐藤優, “「片っ端から捕まえて収容所送り」 「餓死者の肉が市場で売られる」日本人が知らない悲劇のウクライナ史”, 『PRESIDENT Original』 (2022.6.1)

수 있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는 토지의 사유제가 있어, 농민은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고 자활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 농민은 러시아 농민보다 개인주의적이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인 소련에서는 개인이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용서되지 않았다. 토지는 국유화되고 농기구나 가축을 공출하고 국영농장 또는 집단농장에서 일하는 것을 강제당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격렬한 저항이나 태업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집단농장 입성이 정해지면 자신의 가축을 팔거나 먹거나 했다. 그 결과, 이 시기에 우크라이나는 가축의 반을 잃었다. 그 당시의 최고 권력자 스탈린은 이런 저항을 힘으로 억누르려고 했다. 저항하는 사람은 체포하여 시베리아 보내버렸다. 특히, 비교적 유복한 농민은 “농민 중의 부르주아지”로서, 토지를 뺏고 수용소에 보내거나 처형하거나 했다. 당연히 노동 의욕도 생산량도 저하하게 된다.

또, 당시, 소련은 공업화를 진행하고 있었다. 도시지역의 노동자에게 식료를 공급하고, 기계를 수입하기 위한 외화를 벌기 위해서 곡물을 수출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기아 상태가 되었는데도 수출을 위해서 밀을 철저히 징병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는 그 정도의 곡창지대임에도 불구하고, 400만 명 정도의 아사자가 나왔다.

1980년대 말에, 역사를 재검토하는 “아가뇨쿠(등화)”라는 잡지에 실린, 당시의 우크라이나의 충격적인 사진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정육점의 점포 앞에 인육이 매달려 있는 사진이다. 먹을 것이 없어졌으므로, 아사한 인간의 고기를 인간이 사서 먹고 있었다. 이런 서러움을 당한 것은 구소련 안에서도 우크라이나뿐이다.

이 인위적인 대기근은 굶주림을 의미하는 “홀로드”라는 말과 역병을 의미하는 “모르”을 합쳐서 “홀로도모르”라고 부른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홀로도모르 희생자 추도 국립 박물관”이 지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인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철저한 항전을 계속하는 배경에는 이런 역사와 기억의 축적이 있다.

2) 내전의 계기가 된 “언어”

다음으로 언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는 이유로서 들고 있는 것이 돈바스 지방의 러시아계 주민의 보호이지만, 그 원인이 되는 돈바스 지방의 친러시아파 무장 세력과 정부군 사이에 벌어진 내전의 발단이 된 것도 “언어”이다.

러시아에 편입된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어가 금지되고 러시아어가 강제된 것은 19세기. 제정 러시아가 지배하는 모든 영역에서 러시아화 정책을 진행했기 때문이었다. 출판물도 학교 교육도 러시아어만으로 제한되었다.

민족이라는 개념이나 자기의식이 아직 희박했던 시대이다. 더 좋은 일자리나 수입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러시아어를 배우려고 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 이래로 100년 이상이 지나, 우크라이나 동부에 사는 주민의 대부분은 러시아어를 사용하게 되어 우크라이나어는 잊혀져 갔다. 동부에 사는 사람들의 다수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러시아사람인지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서쪽의 가리치아 지방을 지배하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각지의 문화나 자치를 중시하는

방침으로 다언어 정책이었다. 독일어나 헝가리어뿐만 아니라, 폴란드어도 체코어도 그리고 우크라이나어도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었다. 이 지역에 사는 우크라이나인은 자신들은 키예프·루시라는 전통 있는 나라의 올바른 후계이다. 대국인 러시아와 폴란드에 끼어 있는 탓으로 독립을 완수할 수 없었지만, 독자적인 민족이라는 역사관을 길러 왔다.

2013년에 친러시아의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의 강한 압력을 받고 EU와의 연합 협정 체결 서명을 취소한 것을 발단으로 반정부 데모가 빈번해져서 2014년에 추방되자(유로마이단 혁명), 반러 친미 정권이 발족하여 러시아어를 제2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다.

충격을 받은 것은 동부의 돈바스 지역이나 크림반도에 사는 사람들이다. 우크라이나 헌법에서는 공용어가 우크라이나어로 정해져 있지만, 2012년에 “국가언어정책기본법”이 시행되어 일상적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주민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 러시아어를 제2 공용어로서 선언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어가 공용어가 아니게 되면, 우크라이나어로 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공무원은 실직할 우려가 발생한다. 국영기업의 간부 직원이라도 우크라이나어가 능통하지 않으면 일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하르키우, 루한스크, 도네츠크주의 동부 3주나 크림에서는 시청사를 점거하는 등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러자 정부는 행정 기관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테러리스트라고 말하고 놀랍게도 공폭해 버렸다. 당연히 사망자도 나왔다. 이것으로 동부 지역의 주민은 중앙 정부가 자신들을 동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어만 공용어로 한다는 결정은 곧바로 철회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동부 지역이나 크림 주민의 불신감이 그것으로 사그라질 리는 없다. 러시아계 주민이 다수를 차지하는 크림반도에는 러시아군이 개입하였는데 저항을 받지 않고 점령한다. 루한스크주와 도네츠크주에서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무장 세력이 일부 지역을 실효 지배하고 공화국을 가장하여 독립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전후의 소련은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자신들에게 총을 겨누는 것은 지금까지의 소련의 정책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고 반성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융화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1954년 니키타 흐루쇼프 공산당 제1서기는 러시아의 국토였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 이관했다.

흐루쇼프는 러시아인이지만 오래 우크라이나에서 살았고 수상도 역임한 경력의 소유자이다. 흑해의 휴양지로 알려진 크림반도의 할양은 우크라이나에 증여한 것이었다. 당시는 소련이라는 나라 안에 둘 수 있는 영토의 이동에 불과했기 때문에, 심각한 사태를 부를 원인이 되리라는 것 등, 흐루쇼프는 상정하지 않았다.⁴⁾

융화책의 하나로 러시아어밖에 사용할 수 없었던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어의 사용도

4) 佐藤優, “佐藤優が明かす「プーチンが見誤った」民族意識と「言語」の深い関わり「あの文字」を使ったら、マイナス40度のシベリア強制収容所送り”, 『PRESIDENT Original』(2022.6.4)

인정되었다. 단, 문제가 있었다. 러시아어에는 영어의 “H”에 해당하는 발음이 없어, “Г(게)”라고 표기한다. 이것은 영어라면 “G”에 해당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요코하마”를 러시아어로 읽으면 “요코가마(가로 두꺼비)”이다. 우크라이나어에는 “H”의 발음이 있고 “Г(하)”라고 표기해, “G”에 해당하는 소리는 “Г(게)”이다. 그러나 소련은 “Г”라는 문자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Г”로 바꾸게 했다. 오히려, “Г”를 사용하면 소련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하고 강제 수용소에 7년이나 보냈다. 이것에 반혁명죄가 더해지면 형기는 20년에 늘어났다.

【表1】 우크라이나는 지역によって使用言語が大きく異なる

Q あなたがもっと近い親戚、両親、祖父母、兄弟と頻りに話す言語は何ですか（全回答者の%）

| | ウクライナ 全体 | 西 | 中心 | 南 | 東 | ドンバス |
|-----------------------|-------------|------|------|------|------|------|
| ウクライナ語のみ | 32.4 | 80.1 | 26.3 | 10.8 | 4.2 | 0 |
| 主にウクライナ語 | 13.6 | 12.1 | 21.8 | 8.3 | 9.1 | 0 |
| ロシア語とウクライナ語の両方とも等しく話す | 24.9 | 4.5 | 32.8 | 32.1 | 36.3 | 16.7 |
| 主にロシア語 | 12.3 | 0.9 | 13.8 | 15.4 | 21.3 | 15.9 |
| ロシア語のみ | 15.8 | 0.6 | 4.7 | 32.5 | 28.2 | 66.7 |
| 別の言語 | 0.2 | 0.4 | 0.1 | 0 | 0.2 | 0 |
| 親戚はいない | 0.1 | 0 | 0.1 | 0 | 0.2 | 0 |
| 回答することが難しい | 0.4 | 0.9 | 0.1 | 0.8 | 0.2 | 0 |
| 回答拒否 | 0.2 | 0.4 | 0.1 | 0 | 0.2 | 0.8 |

出典：キョウ社会学研究所が2019年に実施した世論調査。クリミア自治共和国を除くすべての地域で実施。ドンバス（ルハンシク州とドネツク州）では、ウクライナ当局によって管理されている地域でのみ調査を実施。

겨울은 -40도가 되는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에서의 생활은 3년이 한도. 즉 “Г”라는 문자를 사용한 것만으로 사형 선고와 같은 죄를 부과한 것이다. 내셔널리즘에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고르바초프 시대에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정치·경제의 재정비)이 시작되자 우크라이나에서는 “Г”를 되찾자는 운동과 러시아 정교회에 병합되었던 유니에이트 교회(동방 전례 가톨릭교회)의 자립을 인정해달라는 운동이 일어난다. 유니에이트 교회는 독자적인 스타일로 변용한 가톨릭에서 가리치아 지방에서 널리 믿어지고 있다.

대신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지해 줄 것으로 착각한 고르바초프는 이들을 인정한다. 고르바초프는 언어나 종교가 얼마나 내셔널리즘과 관계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서부에서의 민족의식은 한층 더 높아져서 소련으로부터의 분리 독립 운동이 퍼져나갔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공교육을 통해 우크라이나어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소련 시대는 거의 러시아어를 말했었던 수도 키이우의 사람들도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게 되어 우크라이나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높여 갔다.

말을 둘러싸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불화는 계속된다. 우크라이나는 독립 후, 국명이 “나·우쿠라이네”라고 쓰인 러시아로부터의 외교 문서를 수리하지 않게 되었다. 러시아어의 “나”라는 전

치사는 영어의 “on”에 상당하고 “브”가 “in”에 해당한다.

국가에 대해서는 “브”가 적당하고, “나”라면 지방이라는 뉘앙스가 강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브·우쿠라이네”라고 쓰인 문서를 보내오면 이것은 러시아어가 아니라고 말하고 수리하지 않았다. 전치사 하나의 문제이지만, 우크라이나로서는 나라의 프라이드에 관련된 대립이었다.

3) 종교: 콘스탄티노플계의 정교회와 모스크바계의 정교회 사이의 전쟁

우크라이나에서는 크리스마스가 2회 있다. 로마·가톨릭 교회가 태양력으로 축하하는 12월 25일과 정교회가 율리우스력으로 축하하는 1월 7일이다. 어느 쪽도 2017년부터 국민의 공휴일이 되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종교 사정도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988년에 키예프·루시의 우라지미르 공이 동방 정교의 세례를 받은 것이 이 지역에서의 기독교의 시작이다. 그 후, 러시아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도 동방 정교가 퍼져 간다. 1686년에 동방 정교회의 필두 권위 콘스탄티노플 총 주교청이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모스크바 총 주교청의 담당에 속한다고 결정한 이래로, 러시아 정교회는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하부조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2014년의 러시아에 의한 크림 병합을 기회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정교회 독립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져, 2018년에 큰 움직임이 있었다.

“동방 정교회”의 필두 권위인 콘스탄티노플 총 주교청이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승인하고 동 정교회에 대한 러시아 정교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사실상의 독립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결정의 배후에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가맹 제국의 의사가 작용했다고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서냉전 이후, 콘스탄티노플 총 주교청은 정치적으로 NATO 가맹 제국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NATO와 러시아의 대리전쟁이 콘스탄티노플계의 정교회와 모스크바계의 정교회 사이에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2022년 5월, 모스크바 총 주교청 담당 하에 남은 우크라이나 정교회도 러시아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양국의 정교회 간의 대립도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서쪽의 가리치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오늘도 가톨릭 신도가 꽤 있다. 그 다수는 유니테이트 교회(동방 전례 가톨릭교회)라고 하고, 약간 색다르게 변화한 가톨릭이다. 종교 개혁에 대한 목적으로 16세기에 결성된 예수회는 동쪽으로 세력을 넓혀, 폴란드나 헝가리에서 프로테스탄트를 구축한 후, 우크라이나에도 들어왔다.

개종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융통성이 있었다. 로마 교황이 가장 훌륭하다는 것과 삼위일체의 교의에 있어서 성령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이로부터도(피리오쿠에)” 배출한다는 교의만 인

5) 佐藤優, “「片っ端から捕まえて収容所送り」 「餓死者の肉が市場で売られる」日本人が知らない悲劇のウクライナ史 徹底抗戦を続ける背景には、こうした歴史と記憶の蓄積がある”, 『PRESIDENT Original』 (2022.6.1)

정하면 된다는 자세로 정교를 특징으로 하는 “성화상”를 비는 것이나, 하급의 성직자가 대처하는 것도 허락했다. 이렇게 독자적인 교회가 완성되어 간다.

소련은 이런 움직임을 소련의 정교회를 완전히 뒤집는 수상하고 음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외형은 정교와 똑 닮았는데 내막은 가톨릭이고 지령은 로마에서 오기 때문이다. 러시아어의 “예즈이트”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예수회사”라고 기술한 후에 “거짓말쟁이, 페텐사”라고 써어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 이 유니에이트 교회는 “자발적으로 곱곰이 생각해 보면, 자신들은 정교도였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며 러시아 정교회 일부가 되지만, 이것은 공식상의 이야기로 실제로 소련의 비밀경찰의 강한 압력에 의한 병합이었다.

말도 종교도 달라서, 가리치아 지방에서는 무장 투쟁을 포함한 격렬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소련은 KGB(구소련 국가 보안 위원회)와 군대를 보내, 저항하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차례 차례로 살해하든가 강제 수용소로 보냈다. 강제 노동으로 짧으면 7년, 길면 25년 수용되었다. 그런데도 10년 이상, 반소 투쟁이 계속되었다. 이 시대에 많은 우크라이나인이 해외(특히 캐나다)로 망명하여 우크라이나의 민족 운동의 중심이 되어 간다.

소련 붕괴의 과정에서, 이 유니에이트 교회를 재흥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 후,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반러시아 세력의 거점이 되었다.

라흐노프 외상이 강조한 것은 미국도 NATO도 러시아도 전쟁은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폴란드라는 점이다. 폴란드는 2022년 3월 중순에, 우크라이나에 평화 유지 부대를 파견하도록 NATO 가맹국에 요청할 의향을 밝혔었다. 미국이나 NATO 본부는 우크라이나 파병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제안인데, 폴란드는 급진적이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폴란드는 18세기 말, 제정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에 의해 분할되어, 123년간에 걸쳐 지도로부터 소멸.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독립했지만, 제2차 세계대전 시에는 소련과 독일로부터 침공받아 다시 분할 점령되었었다. 그 씁쓸한 경험으로부터 러시아의 위협을 강하게 느끼기 때문에, 단호한 대응을 취하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그 정도에 머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서부의 가리치아 지방은 역사적으로 폴란드령이기 때문에, SVR는 폴란드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잃은 영토를 회복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폴란드 당국의 계산으로는 우크라이나 서부로의 예방적 진주는 상당한 확률로 국가 분열을 일으킬 것으로 본다. 그때, 바르샤바는 “폴란드 평화 유지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얻을 것이다.

폴란드가 “평화 유지군”이라는 명목으로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면, 러시아는 적대 행동으로 간주하고 폴란드를 공격할 것이다. 그것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된다는 라브로흐 외상의 경고는 결코 위협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3.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종결할 것인가.

1) 푸틴이 구상하는 “전후의 우크라이나”의 형태

전 외교관이며 작가인 사토 마사루 씨는 “모스크바의 여당 간부로부터 얻은 정보에 따르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의 이익을 응시하고, 미국이 독일과 일본에서 실시한 전후 처리에 관해서 깊이 연구하고 있다.”라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GHQ에 의한 일본의 통치 같은 것을, “전후”의 우크라이나에서 실시하려고 한다. 전후 곧바로 GHQ의 지령으로 교육 칙어가 폐지되어, 초등학교의 교과서로 점령 정책에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검은 철이 되었다. 그 후, 1947년에 교육기본법이 성립하여 교육이 민주화되었다. 또, 군대를 해체하고 해상 보안 기구와 경찰 외에는 군사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

러시아의 최종 목표를 “우크라이나에 친러시아적인 신정권을 세워 비군사화시키고, 시간을 들여 소국으로 나누어 조금씩 병합해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정권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음 3항목이다.⁶⁾

- 우크라이나의 중립화와 비무장화. (“우크라이나의 비 나치화”)
- 크림반도에서의 러시아의 주권의 승인.
- 현 정권에서의 책임자의 처벌.

이것은 항복문서에 사인하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젤렌스키 정권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번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푸틴의 폭주”라고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푸틴 대통령은 대다수 러시아인의 마음속에 어떤 “러시아 제국(1721~1917년)의 지도”를 실현하려고 할 뿐이다. “소련 붕괴에서 지금까지 30년간, 잘도 우리를 바보 취급했구나”라고 하는 울분이 단번에 분출하고 있는 것 같다. 푸틴 1명이 아니라 러시아인 전체가 무섭다.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우크라이나의 비 나치화”이다. 우크라이나 민족 해방 운동의 지도자로, 스테판 반데라(1909~1959년)라는 사람이 있었다. 반데라는 제2차 대전 중에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나치스·독일과 제휴하여 나치스·독일군의 지휘하에 들어가 소련군과 싸우며 소련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도모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독립의 약속을 나치스는 지키지 않아, 반데라는 나치스 점령하에 우크라이나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체포되지만, 반유태주의자이고 유대인 학살에 관여하였다.

6) 佐藤優, “『プーチンの精神状態は異常』という報道は、西側が情報戦で負けている証拠である」相手の内在的論理がわからなければ、対抗手段もわからない”, 『PRESIDENT Original』(2022.3.7)



소련 시대에는 “나치스의 협력자” “과격한 민족주의자” “테러리스트”라는 의미로 증오의 대상으로서 배웠었는데, 근래의 우크라이나에서는 “독립을 위해서 싸운 영웅”으로서 재평가되고, 2016년에는 키예프의 중심에 있던 “모스크바대로”의 이름은 “반데라대로”에 바뀌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런 움직임을 가리켜 “네오 나치”라고 하고, 우크라이나의 내셔널리즘을 해체해 가려고 생각한다.

2) 푸틴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민스크 합의’⁷⁾

새로운 군사 목표가 표명된 곳에서, 푸틴 대통령은 정전의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원래 러시아는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동방 확대만 저지할 수 있다면, 방법은 뭐든지 좋았을 것이다. 선택지 중에서는 민스크 합의가 가장 온화한 방법이었다. 민스크 합의란, 2014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방(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에서 발발한 우크라이나군과 친러시아파 무장 세력의 분쟁 해결을 위해, 15년 2월에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사전 준비를 하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포로셴코 대통령이 서명한 것이다.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 중 친러시아파 무장 세력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지역만으로 한정하고, 특별한 지위를 주도록 우크라이나 헌법을 개정한다. 이 헌법이 개정되면 “특별한 지위”가 부여된 지역이 외교권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이 2개의 지역이 합의하지 않으면 조약을 맺을 수 없도록 우크라이나 헌법을 개정하고, NATO로의 가맹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러시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합의 그 자체가 러시아에 유리한 내용이라는 불만도 있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민스크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푸틴 대통령은 합의는 실패했다며 우크라이나에 침공했다.



7) 佐藤優, “『『プーチンの精神状態は異常』という報道は、西側が情報戦で負けている証拠である』”, 『PRESIDENT Original』 (2022.3.7)

이러한 보도와 함께, 바이든 정권은 발언 내용을 바꾸어 오고 있다. 2022년 5월 31일,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이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라는 타이틀로 뉴욕 타임스에 기고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이 전쟁은 “외교에 의해서만 결정적으로 종결한다”. 모든 교섭은 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량의 무기와 탄약을 신속히 보낸 것은 우크라이나가 전장에서 싸움, 교섭의 자리에서 가능한 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NATO와 러시아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푸친 씨에게 찬동하지 않고, 그의 행동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하지만, 푸친 씨의 실각을 바라지 않는다.

3월에, “(푸틴 대통령은) 권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었던 것에 비하면 분명한 수위 조절이다. 6월 16일에는, 이 오스틴 국방부 장관의 “러시아군을 약체화시킨다”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 바이든 씨는 “지나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발언이 우크라이나에 비현실적인 기대를 안게 하여 미국이 러시아와 직접 충돌할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을 염려하여 말투를 억제하도록 오스틴 씨, 브린켄 씨에게 전했다”라고 미국의 NBC TV의 뉴스가 보도했다.

지금까지 바이든 정권이 주장해 온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나 “러시아를 약체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조용해지고, 그 대신 “외교에 의한 분쟁의 종결” “정전”이라는 말이 눈에 띈다. 전쟁 국면이 러시아의 우위로 바뀌자 미국의 각본도 바뀌어 가고 있다. 전쟁 국면이 러시아의 우위로 바뀌어 가자,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한반도화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국 전쟁의 버전이라면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지 않는다. 영토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남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한국처럼 된다.

6월 2일의 “워싱턴·포스트”의 이그나치우스 씨의 기사 즉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장기에 이르는 한정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 “평화 조약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한국은 세계의 경제적 성공 예의 하나이다. 즉, 우크라이나가 한국처럼 번창하고 러시아가 북한처럼 제재가 가해진 채로 고립한 상태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고찰을 미국 정부의 의향으로서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에게 한반도의 38도선과 같은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분계선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러시아에게는 최종적인 정상화,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중립적 지위, 동국의 군사력의 제한, 동국과 서방 쪽과의 군사 협력, 군사 기술 협력의 제한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를 한반도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미국에 대해 러시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4.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각국의 반응

1) 미국

러시아를 “북한처럼 제재를 가한 채로 고립”시키고 싶은 미국

미국인에게 승리란 무엇일까?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는 없고 승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를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이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우크라이나에 이기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있어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를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약체화시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분쟁이 지속될 규모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한다. 러시아는 약체화한다.

“외교에 의한 분쟁의 종결”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보내는 미국의 속내를 잘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중립화·비군사화”라는 것도 안다.

2) 중국

중국도 “가능한 한 전쟁을 오래 끌어 주었으면 한다”

전쟁이 가능한 한 오래 끌어 주었으면 한다는 점에서는 중국도 일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유사에 미군이 움직이지 않으리라는 것은 시진핑 주석도 눈치채 버렸다. 그러면 대만으로 진군할 시기이라고 결단할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나라인 것에 관해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 무력으로 공격했다고 해도 타국에 대한 침략이 아니라, 국내 문제의 처리에 머무른다. 염려는 대만 원조법을 맺고 있는 미국이 나올지였다. 이번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을 보내지 않은 탓으로, 대만 위기가 높아졌다고 나는 보고 있다.

3) 북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침공이 오래되어 식량이나 에너지를 둘러싸고 세계가 피폐해지는 가운데,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나라가 있다. 북한이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여 이 전쟁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다. 7월 13일에 북한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발표했다. 이 두 지역을 독립국으로써 승인한 나라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시리아에 이어 두 번째이다.

우크라이나는 반발하여 즉각 북한과의 단교를 발표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군사 면에서 협력 관계에 있었다. 미사일의 엔진 등 지원을 받고 있었다. 따라서 양 “인민공화국”을 승인하면, 우크라이나로부터 외교관계가 단절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 러시아 측에서 독립 승인을 권장한 형적은 보이지 않는다. 즉 북한은 양 “인민공화국”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에, 우크라이나와의 단교를 웃도는 장점이 있으리라고 계산했다.

북한의 계산은 무엇일까? 도네츠크와 루간스크가 비즈니스의 장소가 되리라고 읽은 것이다. 러시아의 평론가 도미토리·베르호트로후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현장 감독 사이에서는 “타지크 사람이 1주일로 하는 것을 북한 사람은 반나절이며 충분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도시에서는 주택이나 공공의 건물이 상당히 파괴되었다. 그러한 부흥에는 많은 노동자가 필요하다. 기초공사는 러시아로부터 온 작업반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손이 많이 가는 건물의 내장은 북한 건설 노동자의 전문이다. 따라서, 도네츠크 인민 공화와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긴급히 필요하게 되고 있다. (2022년 8월 16일 “스푸트니크” 일본어판)

북한의 수입원은 무기의 수출이라고 생각되고 있지만, 실은 건설 노동자의 파견이다. 특히 중동에는 많이 파견되어 왔다. 미국의 인공위성으로 내내 관찰되고 있는 북한은 지하 주택의 건설에 관해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중동의 독재국가나 군사 정권의 간부에게 인기가 있다.

유엔에 가맹하지 않은 두 “인민공화국”은 제재를 피하는 샛길이 된다. 전쟁의 포화로 황폐해진 두 “인민공화국”의 국토 재건에 손을 빌릴 수 있는 국가는 러시아밖에 없으므로, 건설 노동자를 대량으로 파견하면 외화를 얻을 수 있다. 국내에 있으면 먹는 등 마는 등 할 노동자를 파견하여 1명이 1일 2달러 상당의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대단한 외화의 획득이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외화란 러시아·루블화이지만, 루블이 있으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이나 석유나 의약품을 러시아에서 살 수 있다.

북한 노동자의 수락은 유엔에 의한 제재의 대상이다. 그러나 유엔에 가맹하지 않은 두 “인민공화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재의 샛길이 된다. 북한에 한 가지 더 좋은 것은 미국의 최신 군사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평론가 베르호트로후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북한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전리품 무기의 조사이다. 서구제의 다양한 무기나 장비 제품이 우크라이나군에 대량으로 공여되었다. 그 일부는 파괴되거나, 탈취되거나, 또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적에게 매각되었다.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에는 현재 이러한 전리품이 대량으로 있다. 그것들을 보거나, 손대거나, 분해되거나, 그 서류를 읽는 것 등을 할 수 있다. 파괴되거나 손상한 장비 제품의 조사에도 큰 관심을 가져진다. 손상의 성질은 서구 쪽의 군사 장비 제품의 취약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어, 그것들을 파괴하는 전술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군사 장비 제품은 다수에 있어서 서쪽의 장비 품과 유사하여 미국이 이용하는 무기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 사령부에는 틀림없이 가치가 있다. (2022년 8월 16일 “스푸트니크” 일본어판)

우크라이나군이 퇴각할 때 황급히 두고 간 미국제 병기나 조작 매뉴얼이 전리품으로서 도네츠크와 루간스크에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그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 북한이 이들을 구매하여 러시아를 경유하고 북한으로 운반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북한이 서방 쪽의 무기에 정통하고 하물며 북한에 대량의 재블린이 반입되게 되면, 한국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대일 전쟁이라는 공통의 기억이 러시아와 북한의 우호 협력 관계의 기초라는 역사 인식이 여기

에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우리가 공동의 노력으로 종합적이며 건설적인 쌍무 관계를 계속해서 확대해 갈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표현으로 러시아가 북한에 협력하려는 자세를 밝히고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에 협력하는 것인가. 생각되는 것은 핵실험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관해서는 러시아, 미국, 일본, 한국, 중국이 연계하고 견제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 일본, 한국을 비 우호국으로 분류했다. 북한은 얼마 안 되는 우호국이기에 때문에, 만일 핵실험을 재개하더라도 “핵의 확산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형태만의 비난에 그칠 것이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도 거부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4) 일본의 선행⁸⁾

(1) 태평양전쟁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고찰하기 전에, 우선은 1941(쇼와 16)년 12월 8일의 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일본은 국민총생산에서 약 12배, 항공기 생산량으로 5배, 국내 석유 산출량에 이르러서는 약 800배의 차이(모두 개전 시)가 나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다. 왜, 승산이 없는 전쟁에 돌입한 것인가. 지금도 계속 묻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고찰하는 데 있어서, 태평양전쟁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외교 혹은 국제 정치는 “가치의 체계” “힘의 체계” “이익의 체계”의 종합으로부터 성립되고 있다. 이 삼요 소 중, 어느 것 하나라도 비대화 하는 것으로 균형을 잃어버리면, 나라일을 그르치게 되어 버린다. 태평양전쟁의 개전을 가치의 체계로 보면 이렇게 된다.

구미 열강 즉 백인에 의해 식민지 지배되고 있는 아시아제국의 해방을 일본이 주도하고 시행하는 대동아 공영권의 구축이라는 대의를 내걸었다. 객관적으로 봐서 그 구상을 실현할 힘이 일본에는 없었다. 개전 시의 일미의 국력 차이에서 압도적으로 일본이 뒤떨어지고 있었다. 개전의 반년 전 일본은 남부 프랑스령 인도지나(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진주했다. 수령화 하는 중일 전쟁의 타개와 자원이 풍부한 남방 진출의 발판을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러나, 남부 프랑스령 인도지나 진주를 계기로 미국은 대일 석유 수출을 금지했다. 장래의 이익 획득은커녕, 일본 국가와 기득 권익을 지키는 것마저 불안하게 되어 버렸다.

(2) 가치의 체계: 개전을 주장하는 도표

당시의 지도층은 양국의 국력 차이는 알고 있었다. 개전 직전에 헐·노트(미국 국무장관 코데르·헐이 제시한 각서. 사실상의 최후통첩)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열린 11월 29일의 중신 회의의 대화를 당시의 외무성 미국 국장이었던 야마모토 구마이치 씨가 “태평양전쟁 비사”에 정리하고

8) 佐藤優, “「ロシアから発信される情報をまじめに分析しない日本のメディアが見落としていること」”, 『PRESIDENT Original』 (2022.12.24)

있다. 그 내용을 작가의 한도 가즈도시(半藤一利) 씨가 “전쟁이라는 것”(PHP 연구소)에서 소개하고 있다. 중신 회의에서의 도죠 히데키 수상 겸 육군 재상과 중신의 와카츠키 레이지로(若槻禮次郎)와의 응수가, 가치의 체계와 힘의 체계와의 충돌을 체현하고 있다. 도죠는 개전을 주장하며 이렇게 말한다.

〈자존 자위와 팔굉일우, 즉 동아의 여러 민족에게 각각이 자존을 얻게 하는 신질서의 건설이 방해받는다면, 대일본제국으로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오늘까지 외교교섭 타개에 종사하며 대단히 자중해 왔지만, 지금 무력을 발동하더라도 정의의 행동이니 부끄럽지 않다〉 (“전쟁이라는 것”)

(3) 힘의 체계: 와카쓰키의 반론

이것에 대해 와카쓰키는 〈이론보다 현실에 맞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한다. 힘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본의 면목을 훼손해도 타결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타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비록 그것이 면목이 없어도, 즉시 개전처럼 무모한 모험은 해서는 안 된다〉과 반론한다. 또한 도죠는 〈이상을 좇아 현실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슨 일에도 이상을 가지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응해, 와카쓰키는 〈아니, 이상을 위해서 나라를 멀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한다.

도죠는 일본에 중요한 “가치”에 따라 대미 전쟁은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고, 와카쓰키는 자국의 “힘”을 냉정하게 판별하고 면목이 없어도 대미 개전에 반대했다. 그러나, 비대한 “가치”의 체계가 “힘”의 체계를 억제하여 1941년 12월 8일을 맞이한다. 당시, 전쟁이나 사변 때마다 부수를 늘린 신문 각지, 지식인, 여론도 “가치”의 체계를 비대시키고 있었다. 그 결과, 일본은 괴멸적인 패배를 맛봤다.

(4) 일본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

그런데, 일본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을 “가치의 체계” “힘의 체계” “이익의 체계”의 삼 요소로 볼 경우,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가치의 체계”는 작년 5월에 방일한 바이든 미 대통령과 기시다 수상과의 회담에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바이든 씨는 “일본은 다른 G7 각국과 함께, 푸틴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임하고 있다”라고 평가. 기시다 씨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는 세계 어디서도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했다〉(2022년 5월 23일, 아사히 신문 디지털)

일본이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바이든 씨는 평가하고 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일본은 대미 종속을 위해서, 자주성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 견해는 반

쯤 올바르게 반쯤 올바르게 않다.

확실히, “가치의 체계”에 있어서 일본은 과잉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동일 보조를 취하고 있지만, “이익의 체계”가 되면 모습이 바뀌게 된다. 예를 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도, G7 안에서 유일하게, 러시아 항공기에 의한 자국 영공의 항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그것에 의해 일본이 시베리아 경유로 유럽에 도달하는 최단 항로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러시아·사할린 근해의 석유·천연가스 개발 프로젝트 “사할린 1” “사할린 2”의 틀에 일본은 머무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다. “사할린 2”에 대해서는, 6월 30일, 푸틴 대통령이 운영 주체의 재편을 명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것으로부터, 틀의 미래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지만, 형식은 바뀌어도 “열매”의 부분에 큰 변화는 없다. 8월 말, 러시아는 미쓰이 물산과 미쓰비시 상사에 “사할린 2”의 새로운 운영회사의 주식취득을 인정하는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익의 체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미국이나 다른 G7 제국에 동조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힘의 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을 격퇴하기 위한 무기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힘의 요구에 일본은 응할 수 없다. 2013년, 그때까지의 무기 수출 삼원칙에 대신하여, 국제 협조주의에 기초한 적극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방위 장비 이전 삼 원칙이 정해졌다. 그런데도,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수 없어, 불용품 취급으로 자위대의 방탄조끼를 보내고, 추가로 시판품의 카메라 부착 무선조종 무인기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

[참고문헌]

- 佐藤優, 「が明かす「消極的だった独ショルツ首相を、超強気に急変させた"ある団体"」, 『PRESIDENT Original』 (2022.5.24)
- 佐藤優, 「プーチン大統領の目的は『ウクライナに傀儡政権を樹立すること』ではない」, 『PRESIDENT Original』 (2022.3.3)
- 佐藤優, 「「片っ端から捕まえて収容所送り」「餓死者の肉が市場で売られる」日本人が知らない悲劇のウクライナ史」, 『PRESIDENT Original』 (2022.6.1)
- 佐藤優, 「佐藤優が明かす「プーチンが見誤った"民族意識"と"言語"の深い関わり」「あの文字」を使ったら、マイナス40度のシベリア強制収容所送り」, 『PRESIDENT Original』 (2022.6.4)
- 佐藤優, 「「片っ端から捕まえて収容所送り」「餓死者の肉が市場で売られる」日本人が知らない悲劇のウクライナ史徹底抗戦を続ける背景には、こうした歴史と記憶の蓄積がある」, 『PRESIDENT Original』 (2022.6.1)
- 佐藤優, 「『プーチンの精神状態は異常』という報道は、西側が情報戦で負けている証拠である」相手の内在的論理がわからなければ、対抗手段もわからない」, 『PRESIDENT Original』 (2022.3.7)
- 佐藤優, 「『プーチンの精神状態は異常』という報道は、西側が情報戦で負けている証拠である」, 『PRESIDENT Original』 (2022.3.7)
- 佐藤優, 「「ロシアから発信される情報をまじめに分析しない日本のメディアが見落としていること」」, 『PRESIDENT Original』 (2022.12.24)

‘원주민’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

김자영
(원광대학교)

1. 문제 제기

2022년 <국제 원주민의 날>을 맞아 WHO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구상에는 북극에서 남태평양에 이르기까지 세계 90개국에 걸쳐 4억7천600만 명의 원주민이 7천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다. 이들은 전 세계 인구의 5% 남짓이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로 분류된 인구 가운데에서는 15%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¹⁾ 원주민에 관한 이슈 중에서 꽤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으나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원주민’을 부르는 용어의 문제이다. 여기서 ‘원주민’이란 개척지 혹은 이주지가 된 땅에 새로운 민족이 들어오기 그 이전부터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다.

미셸 푸코의 담론이론이 일갈하는 것처럼, 언어는 지식과 권력의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것은 언어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지식과 진실을 구성하는데 사용된다는 뜻으로, 이는 기본적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푸코에 따르면 사람의 시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회 경제적 지위 즉, 부와 계급, 교육수준, 성별, 민족과 인종 등이 있다. 백인 남성 의사가 흑인 여성 간호사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꼭 그가 말하는 것이 더 ‘사실’이라는 보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성별, 인종, 직업이 그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인식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²⁾ ‘원주민’이라는 집합명사를 통해 이들을 명명하는 것이 19세기의 식민지적 이데올로기성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 피식민자들을 타자화하고 원주민이라는 명칭으로 한데 묶음으로써 식민주의자들과 피식민주의자들의 각각의 동질성을 확고히 하려고 했던 제국주의자들의 명맥을 잇고 있다는 점, 수탈과 차별의 경험을 내포하고 여전히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세계 원주민 집단은 용어의 사용에 반대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하여 각국 역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올바른(politically correct)’ 용어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용어 속에 담을 수 있는 ‘원주민’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1) WHO 2022,

<https://www.who.int/news-room/events/detail/2022/08/09/default-calendar/international-day-of-the-world-s-indigenous-peoples>

2) 신동일, “언어학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전통, 그리고 비판적 담론연구의 출현”, 한국질적탐구학회, 제4권 제3호, 2018.

본고에서는 ‘원주민’ 관련 용어사용에 대한 서구 및 러시아의 현황과 현재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명칭들을 살펴볼 것이다.

2. 용어 사용의 역사와 현황

<서구>

과거 세계 식민지화 과정에서 원주민에 대한 이해는 그 지역 땅에서의 자생성(autochthon), 토박이(native), 기원(aborigine), 출생(indigena - locally born)의 개념과 연관되어 생겨났다. 1492년 콜롬부스가 아메리카대륙에 도착했을 때 사용하기 시작한 인디언(indian)이라는 용어도 있으며 이 용어의 사용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북미에서 아직 그 용도가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니다.

17세기 이후로 알려진 원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들 중 현재 가장 일반적이며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indigenous(peoples)이다. 이 단어는 1930년대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주민 모집 협약(Recruiting of Indigenous Workers Convention, No. 50)>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강제 이주된 노예나 노동자가 아닌 현지인만을 의미했다. 이 명칭은 유엔이 2002년 개최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³⁾

그러나 문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원주민’을 가리키는 용어가 그 역사와 함께 인류에게 전달하는 부정적이고 차별적이며 식민지적인 이미지이다. 과거 제국주의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인류학에서 파생한 문화진화론에 따라 문화가 ‘야만(수렵)-미개(유목)-문명’의 단계를 거친다는 ‘자민족중심주의’를 중심으로 서구인들이 식민국가에서 만난 모든 비유럽인들을 ‘원주민’으로 묶고 철저하게 타자화한 역사적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기 때문이다. 근원적으로 경멸적이고 서구의 우월성에 대한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수많은 다양한 민족 집단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개념의 포괄성 혹은 부정확성 때문에도 오늘날 ‘원주민’들은 이 용어로 자신들을 정의하는 것을 반대한다.

문화상대주의와 다선형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개발 수준과 관계없이 다양한 민족의 가치와 권리에 관심을 가진 전후 시대가 되면서 1950년대 ILO 협약 제107호 <독립국가의 원주민 및 기타 부족 및 준부족 주민의 보호 및 통합>이 채택되었고, 이후 1990년대까지 ILO는 전 세계 원주민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개념을 정의하고자 노력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몇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 발표된 2007년 유엔의 원주민 권리 선언 <원주민은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다:

- ✓ 자신이 원주민이라는 개인의 정체성 및 원주민 공동체에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자
- ✓ 식민지 이전 정착민 사회와의 역사적 연속성
- ✓ 해당 지역의 영토 및 주변 천연자원과의 강력한 연결성
- ✓ 해당 국가의 지배적인 주류가 아니며 개발의 단계가 낮은 집단

3) Головнёв А.,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ракурсы и статусы”, Этнография No. 3(17), 2022.

- ✓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유의 뚜렷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차이
- ✓ 조상의 환경과 체제, 민족적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열망

2014년 <세계 원주민 회의(The World Conference of Indigenous Peoples)>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의 원주민 단체는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들에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차별과 경멸적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원주민 출신이라고 밝히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하고 있다.⁴⁾ 또한 ‘원주민’이라는 하나의 용어에 너무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집단들을 포괄하려는 시도 역시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적’ 발상의 연속선이므로 보편적 용어와 보편적 정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⁵⁾

호주에서는 aborigine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 법적으로 인디언(First Nation), 이누이트, 메티스⁶⁾ 세 그룹의 원주민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디언을 퍼스트 네이션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진행 중이며 퍼스트 네이션은 점차 캐나다의 법적 담론에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과 원주민 단체들에 의해 한 가지 집합명사보다는 마오리, Anishinabek Nation 등 각 종족의 이름으로 기존의 ‘원주민’을 명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서구에서 원주민을 명명하는 여러 용어들로는 Aborigine, indigenous(peoples), native, first nation(first peoples) 등이 있고, 한국어로는 ‘원주민/토착민(족)’, ‘선주민(족)’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1> 2022년 6월, 캐나다 트뤼도 총리와 식시카 네이션(Siksika nation) 대표의 만남



출처: “The Stettler Independent,” <https://www.stettlerindependent.com/news/keep-our-people-safe-alberta-first-nation-wants-to-move-ahead-with-police-force/> (검색일: 2023. 6월30일)

4) Винокурова У.А., “Проблема правового определения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Арктики”,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No. 2(2), 2022.

5) Малые народы России, <https://nationality-of-russia.jimdofree.com/>

6) First nation(선주민(족))은 광의의 의미일 때는 인디언과 이누이트, 메티스(유럽인과의 혼혈인)를 모두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누이트, 메티스와 구분한다. 과거 북극권 원주민을 통틀어 에스키모라고 부르기도 했으나 이는 특히 캐나다와 그린란드에서 멸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실제 명확한 용어도 아니라는 점에서 서구권에서는 퇴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러시아>

소련은 자국 내 식민지의 존재를 부정하고 소련이라는 국가 자체가 다민족의 통합을 기반으로 형성된 국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국가 창설 초기 ILO의 국제 협약에 동의하지 않았다. 소련은 1920년대 소련 내 비 러시아민족(русский народ)에 대해 Малые народы 란 용어를 사용했고, 1980년대까지 Коренные народы 란 용어는 익숙하지 않았다.⁷⁾ 러시아 사회학 백과사전과 오제고프(Ожегов С.И.) 사전에 따르면 단어 малый 는 ‘작은/적은’의 뜻을 가지고 있고 народ (nation/people) 라는 단어가 малочисленный(small)와 결합할 때 Малые народы와 동의어로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소련은 원주민들에 대한 명칭을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로 바꾸어 나가게 된다. 단어 коренной는 корень(뿌리)에서 파생한 단어로 native/aborigine/indigenous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소련 정부는 이들 민족들을 국가공동체에 통합하기 위한 <북방인민지원위원회>를 조직하여 소민족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꾀함으로써 '문화적 후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련 정부는 유럽식, 제정러시아식 제국주의와는 선을 그었지만 서구인들이 원주민을 바라보는 일반적 시선⁸⁾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1989년 ILO가 발표한 <독립국가의 원주민 및 부족에 관한 협약 169호>에 따라 1980-1990년대에 소련 및 러시아에서도 원주민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1996년 발표된 대통령령 제909호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indigenous minority peoples)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No. 82-FZ>에 따라 소수민족에 대한 정의와 지원정책을 정리하였다. 이후 러시아에서 коренные народы(KH indigenous peoples)과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KMH indigenous minority peoples)의 개념은 분리되었다.⁹⁾

KH은 식민화 기간 동안 특정 영토에 거주하거나 기존 국경이 설정될 당시 특정 영토에 거주했던 민족 공동체를 말한다. 국가 내 다른 집단보다 사회 경제적 발전 단계가 낮고 법적 지위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자체 관습, 전통, 특별법에 의해 규제되는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포함된다. 그 외 국제기구가 정하고 있는 원주민의 정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KMH은 KH과 같이 조상의 전통적인 정착지 영토에 살고 있는 민족 공동체로, 러시아 연방에서는 최대 5만 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전통적인 생활방식, 경제활동 등을 보존하며 스스로를 독립적인 민족공동체로서 인식한

7) Малые народы России, <https://nationality-of-russia.jimdofree.com/>

8) ILO 협약 <독립 국가의 부족 및 준 부족 생활 방식을 이끄는 원주민 및 기타 인구의 보호 및 통합(No. 107, 1959)>의 내용을 보면, 원주민이란 ‘독립 국가에서 부족 및 준 부족 생활방식을 주도하는 주민의 일부로, 나머지 국가 공동체보다 사회 경제적 발전이 낮은 단계에 있으며 법적 지위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그들 자신의 다른 관습, 전통 또는 특별법에 의해 규제됨’으로 되어 있다. 원주민이 기본적으로 서구인보다 미개하며 서구인들에 의해 문명화되어야 한다는 차별적, 우월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

9) Головнёв А.,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ракурсы и статусы”, Этнография No. 3(17), 2022.

다. 또한 러시아에서 KMH는 주로 러시아의 북부지역, 시베리아, 극동지역의 원주민을 가리킨다.

골로브노프(Головнёв)나 비노쿠로바(Винокурова) 등 일부 전문가들은 KH와 KMH를 5만의 숫자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을 나누는 것이 결과적으로 과거 소련정부에 사슴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원주민들이 사슴의 두수를 속였던 것처럼,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도 항상 5만 명 미만으로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아마도 네네츠인의 숫자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4만 여명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국가 지원정책에 포함되는 원주민의 기준에서 숫자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러시아에 살고 있는 사미인의 숫자는 2천명이지만 북유럽에서 집계된 숫자는 5만 명이 넘는데 그렇다면 이 민족은 소수민족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집중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소수민족'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한 야쿠트인이나 카렐리야인, 코미인들은 KMH의 정의와 맞아 떨어지지만 숫자라는 요건 때문에 조상 대대로 살아온 영토와 천연자원의 활용부분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며, 연방정부가 신속히 KH와 KMH의 구분을 없애거나 보다 포괄적인 '원주민'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¹⁰⁾ 한국어로는 원주민/토착민/토착민족/토착소수민족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3. 맺는 말

현재 서구권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로는 Aborigine, indigenous(indigenous peoples), native, Indian, first nation 등이 있고,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점차 권장되고 있는 것은 indigenous(indigenous peoples)와 first nation이다. 러시아의 경우 KH와 KMH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숫자 5만 명을 제외하면 같은 개념으로 KH가 보다 포괄적인 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주로 통용되는 용어는 원주민/토착민/토착민족/토착소수민족/선주민/선주민족이다.

러시아 지역으로 한정하여 본다면 2000년대까지 '시베리아·극동 소수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점차 토착민/토착민족/토착소수민족을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때 '민족'이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종족(부족 tribe)과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산물로 알려진 '민족'이란 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자들 개인의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주민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이 '원주민과 부족, 준부족'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처럼 러시아 원주민의 다양한 공동체를 지칭할 때 혼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¹¹⁾ 또한 '소수(민족)'는 종속과 지배를 전제로 하는 역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그 사용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옳바르지 않을까 생각된다.

10) Винокурова У.А., "Проблема правового определения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Арктики",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No. 2(2), 2022.

11) 예를 들어, 네네츠민족, 네네츠인, 네네츠족 등이 모두 혼용되어 동일한 집단을 가리키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원주민의 명명 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다. 푸코의 담론 개념을 다시 떠올리지 않아도 언어 그리고 명명이 내포하고 전달하는 인식과 의미는 결코 사소하지 않다. 또한 언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유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보편적 용어의 선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형이며, 어쩌면 서구권 원주민 단체들의 바람대로 공동체 각각의 전통적인 이름대로 불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를 곧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참고문헌]

- 신동일, “언어학적 전환, 비판적 언어학 전통, 그리고 비판적 담론연구의 출현”, *한국질적탐구학회*, 제4권 제3호, 2018.
- 탁장한, “빈곤의 균락과 탈식민주의의 접목”, *사회과학연구*, 제30권 2호, 2022.
- Charron Marie-Celine, “No perfect answer: Is it First Nations, Aboriginal or Indigenous?”, *NATIONAL*, 2019. <https://www.national.ca/en/perspectives/detail/no-perfect-answer-first-nations-aboriginal-indigenous/#site-pages>
- Peters Machael A. · Mika Carl T., “Aborigine, Indian, indigenous or first nations?”, *Educational Philosophy and Theory* Volume 49, 2017.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0131857.2017.1279879>
- UNDRIP(United Nations Declaration On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Social Inclusion, <https://social.desa.un.org/issues/indigenous-peoples/united-nations-declaration-on-the-rights-of-indigenous-peoples>
- WHO 2022, <https://www.who.int/news-room/events/detail/2022/08/09/default-calendar/international-day-of-the-world-s-indigenous-peoples>
- Винокурова У. А., “Проблема правового определения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Арктики”, *Развитие территорий* No. 2(2), 2022.
- Головнёв А.,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ракурсы и статусы”, *Этнограф* No. 3(17), 2022.
- Малые народы России, <https://nationality-of-russia.jimdofree.com/>
- Соколова Ф. Х., “Коренные малочисленные народы Арктики: концепт,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культуры”, *Арктика и Север* No. 12, 2013.
-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Ожегова онлайн, <https://slovarozhegova.ru/>
- Энциклопедия социологии, <https://nationality-of-russia.jimdofree.com/>

[공지 사항]

- 본 잡지 『북극연구』는 북극 지역에 관련된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유로운 형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게재되는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을 주관하는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과학연구소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연구영역의 확장과 연구성과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 예정일이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고 마감일은 매 발간 월 20일까지임을 공지합니다.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한국 시베리아 연구』의 출간 횟수와 일정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연 2회 발간에 서 연 4회(매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로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논문 투고 마감일은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학술지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